

12. 2월 + 0
2월 17일



전혜주

이달의 표지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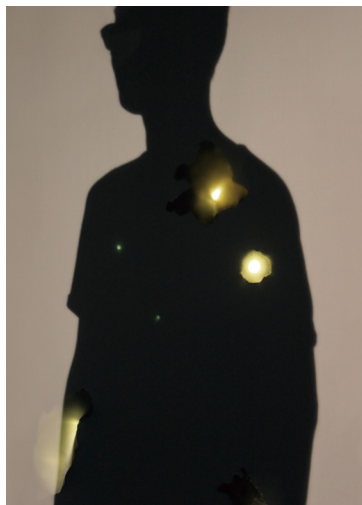


표지 작품

〈환각지_Phantom Limb〉

3D 프린트·LED·조명·스크린 블라인드

가변설치 | 2014



전혜주 작가는 독일 오펜바흐조형예술대학교에서 시각예술을 전공하고 베를린국립예술대학교에서 석사 과정 졸업 후 마이스터슐러(Meisterschüler) 자격을 취득했다. 2013~2014년 올라퍼 엘리아슨 스튜디오의 ‘공간연구소-Institute for spatial experiments’에 참여작가로 활동했고,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2017), 인천아트플랫폼(2018), 경기창작센터(2019)의 입주작가로 선정돼 활동했다. 국내외에서 다양한 프로젝트와 단체전 및 개인전을 통해 공간에 남은 시간의 흔적과 개인의 관계에 대해 탐구하는 미디어 설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2020년 금천예술공장 11기 입주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나의 작업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도시 공간에 관심을 두고 있다. 도시의 다양한 장소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숏한 자연 속에서 변화를 겪는다. 그리고 각각의 장소에서 개개인은 다양한 경험을 한다. 나는 작품을 통해 도시 공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재조명함으로써 그것이 전하는 의미와 경험을 나누려고 한다. 주로 역사적 사실과 서로 다른 개인의 이야기, 사회와 생태 현상에 주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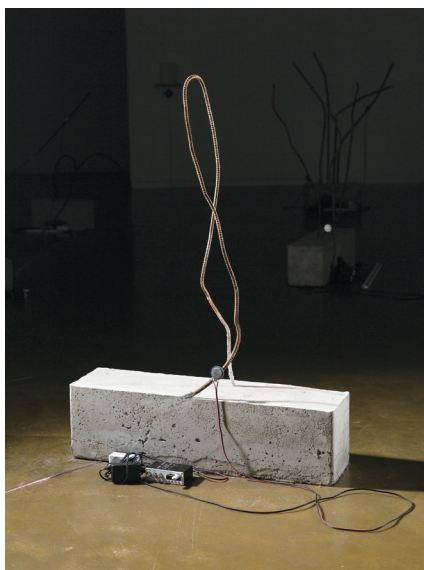
특정 장소에서 수집한 물질과 흔적을 이용해 조형물, 영상, 사운드 등 시청각 미디어 작품을 만들며, 전혀 다른 공간과 시간에 일어난 현상이 유사하게 중첩되는 경험을 공유한다. 그러한 작업으로 도시 노후화와 재개발, 고립과 소외, 관광지와 소비 대상으로서의 도시가 시멘트·철근·흙·식물·목소리 등의 형태로 수집되고 전시됐다.

최근작에서는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도시 공간에서 의식하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지나쳐 버리는 꽃가루, 미세먼지 등의 작은 입자와 무감각한 영역이지만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소리 신호를 탐색하고 가시화하는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나의 작업은 이렇게 익숙한 도시 풍경 이면에서 발견되는 도시의 순환적 과정을 작품화하며, 그러한 장소가 직접 경험하는 관객에게도 색다른 감각으로 읽히길 바란다.



〈환각지_Phantom Limb〉

3D 프린트·LED·조명·스크린 블라인드 | 가변설치 | 2014



〈무심(無心), 한 물줄기의 이름〉

시멘트·수집된 철근·진동스피커·앰프·1채널 사운드
150×90×24cm | 2017



〈회전_Whirl〉

목재·천·완충재·진동변환 장치·앰프·픽업마이크
300×300×120cm | 2019

CONTENTS

2020 11 VOL. 165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발행인	김종휘
편집 총괄	이규승
기획·편집	전주호, 오니트(주)
각원 편집위원	전민정
사진·디자인	(재)서울문화재단, 오니트(주)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전화	02-3290-7066
팩스	02-6008-7347
홈페이지	www.sfac.or.kr
웹진	www.sfac.or.kr/magazine
발행일	2020년 10월 30일
등록일	2005년 6월 8일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01 커버스토리

이달의 표지 작가 전해주

테마 토크

서울예술교육센터, 첫걸음을 떼다

06 칼럼

서울예술교육센터와 예술교육의 변화

08 미리보기 ① 공간

서울예술교육센터 공간 소개

12 미리보기 ② 콜로키움

2020 서울예술교육센터 콜로키움

14 리포트

X·Y·Z 세대의 핫플레이스로 본 청소년 놀이 문화

사람과 사람

18 문화인

영화감독·작가 이길보라

22 작가의 방

상흥 국악 싱어송라이터·조정래 영화감독

24 서울 활나



26 진실 혹은 대답

〈같이 잇는 가치〉오픈 포럼 '창작으로의 연대'

이슈 & 토픽

32 화제 1

콘텐츠 유통·소비의 새로운 방식 '메일링 서비스'

34 화제 2

신당창작아케이드×롯데백화점 유망예술가 초청 전시
〈예술해독제: Detoxicants〉

36 화제 3

출범 1년 관악문화재단의 지역특성화 사업

공간, 공감

38 공간

다락옥수

40 공감 1

연극 〈오만과 편견〉과 뮤지컬 〈고스트〉

42 공감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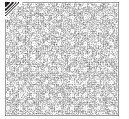
전시 〈변시지, 시대의 빛과 바람〉과 〈TeamLab: LIFE〉

44 공감 3

책 〈규칙 없음〉과 〈베조노믹스〉



SOUL OF SEOUL



46 이경자의 서울 반세기, 공간을 더듬다²⁴

1990년대의 시작, 수유동 530번지의 시간

48 김송희의 썰(說)

온라인 '창문 채널'로부터 받는 어떤 위안

50 류태형의 음악정원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SSF) 개막 공연

52 최재훈의 씨니컬(Cine_Col: Cinema Column)

김초희 감독의 〈찬실이는 복도 많지〉

WEBZINE+

56 웹진 [비유]

Ping-pong, 명령과 오류 주고받기

58 웹진 [연극in]

제너럴콘스트 〈피켓라인_은희에게 은희는〉

60 웹진 [춤:in]

모모로움직임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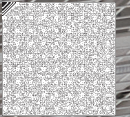
62 11월의 서울문화매뉴얼

68 편집 후기



서울예술교육센터 첫걸음을 떼다

어른들이 모르는 지금의 청소년은
어떤 공간을 원하고 무엇을 하고 싶어 할까.
서울예술교육센터는 일방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청소년이 편하게 드나들고 즐겁게 놀면서
예술가와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을 꿈꾼다.
쓸데없어 보이는 짓을 하거나
실패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해보면서
청소년이 스스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는
서울예술교육센터를 미리 둘러보고
세대별 청소년 놀이 공간의 변천사를 훑어본다.



서울예술교육센터에서 주목할 점은 그동안 학교라는 틀 안에서 예술교육에 본질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청소년에게 집중하는 예술교육센터라는 사실이다. 예술교육센터를 예술가의 아틀리에로 설정하고, 가르치는 교육이 아닌 공동 창작 작업으로 초대하는 실험도 진행된다. 시민이 예술 경험으로 환대받고 일상적으로 감정을 소통하는 문화 라운지도 운영된다.

서로 배우고 스며드는 예술교육 공간

서울예술교육센터와 예술교육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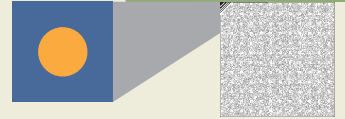
정책이 예고한 변화,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2018~2022)은 ‘지역 중심’으로, 서울시 문화예술교육기본계획(2018~2022)은 ‘생활 속’으로 예술교육의 변화를 강조했다. 이렇게 변화할 예술교육의 거점 인프라로서 예술교육센터 확충이 예고돼 왔다. 서울문화재단은 2019년에 이를 준비하는 〈서울형 문화예술교육 2.0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 결과를 근간으로 2020년에는 예술교육의 철학, 예술교육가, 거점, 거버넌스, 프로그램 등 세부 영역에서 변화 전략을 준비해 오고 있다. 재단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선포하는 변화가 아니라, 함께 만드는 변화가 되도록 예술교육 현장의 의견을 두루 듣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예술교육 변화 공동기획단’을 위촉해 재단 직원들과 더욱 긴밀하고 지속적으로 변화 전략을 논의해 오고 있다. 아울러 ‘2020 서울예술교육 아카데미_질문의 진화’와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 변화를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그동안의 변화 준비 상황을 종합해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2021년 예술교육사업 기조로 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예술교육 정책의 변화 속에서, 그리고 변화를 이끌며, 서울 예술교육센터가 개관한다. 시즌 프로그램 디렉터를 위촉해 공간 구성부터 운영까지 함께 기획하고, 길게 관계 맺는 협업 방식도 실험한다. 코로나19가 요구하는 공공행정의 변화와 함께 예술교육의 진화를 위한 이런 실험의 성과는 곧이어 진행될 서서울예술교육센터 리뉴얼과 권역별 거점 예술교육센터 조성에도 적용될 것이다.

예술교육의 가치와 태도의 재확인이 필요한 시점

정책에서는 조직과 예산의 분화를 의미하는 ‘영역’의 확보가 중요한 시기가 있다. 2000년에 시작한 국악강사와 2005년에 더 확대된 예술강사 제도는 예술가 일자리 확보를 위해 공교육이라는 제도적 공간으로 기꺼이 또는 전략적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요구되는 ‘교육’이라



는 형식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때 정책의 태도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백년대계’로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것이었다. 호들갑스럽게 밀레니엄 버그를 잡고 나서 좀 더 진보한 정권은, 이제 삶의 질이 중요해졌으며, ‘예술의 힘’을 믿으며 ‘예술교육’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가가 강조한 ‘예술교육’의 바탕에는 창의력이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는 힘이 돼줄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었다. 2006년에 문화예술교육진흥법에서 ‘사회예술교육’이라고 구분하고 정의하던 ‘교육’의 태도와 관점은, 지역에서 골고루 누려야 할 문화적 행복을 기본권 수준으로 요구하는 2010년대 시민의 감성 수준에도 크게 못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교육이 교육의 관점과 태도를 버렸을 때, 그 형식으로는 생활예술과 구분되지 않는 ‘영역’을 지켜줄 제도적 장치로서는 이 법의 정의가 유일하다. 그런데 2020년을 사는 사람들은 그들을 가르치던 국가권력을 전복하는 개인들의 힘을 경험한 바 있다. 그런 시민들 앞에서 예술교육 정책이 여전히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가르치는 교육의 태도’를 고수한다면, 먼저 태어난(先生) 끈대 또는 많이 아는 엘리트 지식인과 운명을 같이할 것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예술교육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도와 형식보다는 그 행위를 통해 구현하겠다는 가치를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의 가치가 아닌 예술의 가치가 당연히 우선시돼야 한다. 예술에는 여러 가지 가치가 내재하므로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 없다. ‘Arts in Education’이든지 ‘Arts is Education’이든지, 그동안의 AiE 프레임은 국민을 가르치는 교육과 교차할 수 있는 예술의 가치를 중시했다. 그런데 국가 주도의 성장 담론이 퇴색한 지금은, 인간 개인의 감성 표현과 소통을 도와주는 예술의 가치를 부각하는 AiC(Arts in Communication·Community·Commons) 프레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교육제도 안에도 창의성보다 기계와 구별되는 인간의 감각을 키우는 예술이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한다. 이런 가치를 중시할 때 가르치는 태도에서 ‘서로 배우고 스며드는’ 태도로의 전환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필요조건이 된다.

정책과 서비스의 거점보다는 관계의 주체로

역병은 세익스피어와 뉴턴에게 역사에 길이 남을 깊은 생각을 할 시간을 만들어주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문화정책의 ‘성과 만들기’를 잠시 멈추고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도록 만들었다. 그 질문에 마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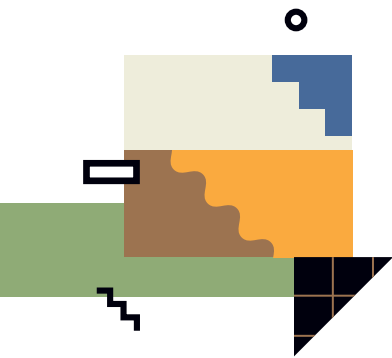
한 답을 찾지 않고는 예술교육 또는 문화정책의 지속 혹은 진화는 불가능할 것 같다. 역병 통제와 경제 활력 유지 전략 사이에서 문화와 예술이 고려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여태까지 당연한 것으로 주장했던 문화와 예술의 가치가 정말 실재하는지 또는 국민에게 경험되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친 시민들은 이제 도시화된 삶의 조건 안에서 결코 넓게 허용되지 않는 ‘나의 공간’에서 나와서 ‘사람’과 연결되기를 갈망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예술교육 단체들이 지원사업으로 계획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전환한 경우는 50%도 되지 않았다. 공공 문화시설이 먼저 안전하게 문을 닫을 것이 아니라 안전한 만남의 거점으로 열려 있다면, 굳이 돈 낸 만큼 방역된 공간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소위 공유 공간을 찾겠는가? 그렇다고 시민들의 만남을 바로 ‘우리’로 호명하는 문화정책의 촌스러움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연결돼 있지만 ‘우리’로 엮매지 않는 문화적 교류가 코로나 블루로 재확인되는 현대인의 존재와 관계에서 비롯된 상처를 달래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리로 소통하기 위해 나를 먼저 감각하는 예술이 필요하다. 서울예술교육센터는 시민들의 이런 문화적 소통의 거점으로 열린다. 그런데 정책이 사용하는 ‘거점’이라는 말은 좀 전투적으로 들린다. 시민에게 전달돼야 할 문화·국가의 복지 서비스가 모이고 분배되는 역동적인 양상이 상상된다. 당초 정책 입안자는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위해 광역에서 기초로, 또는 정책에서 현장으로, 위에서 아래로 술술 흘러가는 구조를 떠올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보면, 누구나 다 자기 자리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 뭔가를 위에서 받아서 아래로 내리는 임무를 본인의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주체는 없었다. 거점에 대한 정책의 인식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은 자원을 찾아 오가는 흐름을 만들기 위한 조건이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는 그 흐름 안에서 만들어지는 관계다. 예술이 시민의 삶 속으로 스며드는 긴 호흡의 관계를 위해 열려 있는 공간, 예술가들이 서로 영감을 주고받으며 배우는 만남의 거점, 예술의 가치로 삶의 다양한 영역으로 스며들어 가보자는 창의적인 모의를 하는 곳... 그런 예술교육센터가 돼야 할 것이다. 서울예술교육센터는 단순히 정책 서비스의 거점 시설이 아니라 서울문화재단의 문화기획자들이 그런 관계의 주체로서 일하고 있는 ‘그곳’이 되기를 희망한다.

글 김해보_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본부장

청소년의 쓸모 있는 경험을 모색하는 예술교육

서울예술교육센터 공간 소개



용산구에 자리한 서울예술교육센터는 청소년이 다양한 예술 경험을 통해 삶의 감각을 깨우고 생각의 지평을 확장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탐색하는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청소년을 가르치고 훈육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관찰하고 경험하며 다양한 가치를 그려나가고자 한다. 일상과 예술이 만날 때, 사회가 말하는 '쓸데없는 짓'이 청소년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쓸모 있는 경험'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서울예술교육센터를 마련했다.

1층·1.5층 서울라운지

서울라운지는 시민을 위한 현대의 공간인 '라운지'와 교류의 공간인 '라이브러리'가 결합된 곳이다. 누구나 자유로이 방문해 휴식과 사색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 생각과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곳으로 시민에게 다가가고자 한다.

함께 만든다

서울예술교육센터의 공간에는 '편안함'과 '즐거움'이 함께 있다. 1층에 위치한 '서울라운지'는 편안함을 담당한다. 센터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는 '안내인(컨시어지)'이 상주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감정서가' 프로그램이 연중 상시 진행된다. 서울라운지는 상호 유기적인 콘텐츠로 운영된다. 주어진 것을 해내야 하거나 갖춰진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비워진 상태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무엇이든 자유롭게 채워나간다. 어른의 간섭 없이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고, 마음을 표현하는 곳이다. 매니저들은 어른이 아닌 친구로서 함께 만든 순간을 관찰하고 기록·수집한다. 함께 대화하고 교감하며 의미 있는 상황을 분석하고 토론한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만든 낱장의 경험이 체계적으로 모여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세상에 없던 한 권의 이야기가 돼 다른 사람과 공유된다. 아이들이 만든 현재가 센터와 함께 미래를 만든다.

함께 경험한다

서울예술교육센터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예술가와 함께할 기회를 선물한다. '좋아하는 것을 그냥 하기만 하면 되도록' 하는 것이 모든 운영 프로그램의 원칙이며 기준이 된다. '무언가를 하고 싶은 아이들'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경험'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이 공간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아이들은 예술가와 함께 질문하고 관찰하며 스스로의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을 경험한다. 반복된 경험의 기억은 공간의 분위기를 만들고, 이 안에서는 언제나 자유롭게 안전하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편안함을 심어준다. 자발적인 시도는 흥미와 재미를 이끌어내며 자신의 세계를 넓고 깊게 만든다. 크고 강렬한 한두 번의 경험이 아닌 소소하지만 즐거운 경험이 쌓여가며 아이들의 내일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스스로 만든 세계 속에서 서로 교류하며 성장한다.



아이들에게 미래를 배운다

그동안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어른이 주체가 돼 가장 순수하며, 가장 온전한 아이들을 다듬어가는 과정이 교육의 역할이었다. 서울예술교육센터에서는 아이들을 교육하지 않는다. 이곳의 운영 철학은 ‘길들임이 아닌 바라봄’에 기반하며, ‘어른이 아닌 친구’가 돼주고, ‘교육이 아닌 공감’의 태도를 지키며 아이들과 함께한다. 아이들이 만든 모든 것을 따뜻하게 관찰하고, 세심하게 기록하고, 정교하게 수집한다.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하고 계획하고 만들고 공유하는 모든 쓸데없는 사건(contents)이 쌓여 쓸모 있는 존재(value)를 만들고, 함께 나눈 경험담은 의미 있는 맥락(context)으로 진화한다. 우리는 이곳에서 일어나는 아이들의 상상과 실천으로부터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미래를 만난다.

1 서울예술교육센터 1층 서울라운지

삶의 새로운 기준을 담아가는 곳, 감정서가

우리는 지금 다운로드의 시대 끝에서 스트리밍의 세계를 무차별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아이들은 소유하지 않고 점유하는 것 혹은 사라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사라지는 모든 것은 흔적을 남긴다”는 장 보드리야르의 말이 다르게 해석될지도 모른다. 흔적 없이 사라지는 시대를 사는 인간의 기억은 시간이 흐름과 함께 소멸된다. 감정서가는 이곳에서 일어나는 공동의 기억과 기록,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한 어른과 아이들의 경험을 저장하는 라이브러리다. 누구나 이곳에 오면, 자신만의 이야기를 쓰고 담고 읽는 과정을 반복하며 가장 순수했던 자기만의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한 사람의 삶은 그 자체로 유일무이한 예술적 가치를 지닌다. 소중한 경험의 순간이 종이 위에 쓰이고, 모여서 한 권의 책이 돼 서가를 채운다. 이 책을 읽으면, 따로 있지만 ‘같이’라는 것을 느끼게 만든다. 공감은 마음을 움직인다.

글 이재준_서울예술교육센터 기획감독 사진 서울문화재단



5층·6층
서울스튜디오

서울스튜디오는 청소년과 예술가가 예술 활동을 통해 만나는 공간이다. 청소년은 다양한 ‘매체(미디어)’를 매개로 자기표현의 예술적 경험을 하고, 여러 ‘도구’를 활용해 자신이 원하는 문화적 놀이 공간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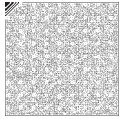
청소년의 자발적 질문의 공간

예술가가 교육 현장(scene)에 들어서며 청소년에게 가장 많이 듣고 싶은 말은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또는 “왜 이렇게 될까요?”라는 질문이다. 반면 청소년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이걸 언제 다 해요?”나, “이렇게 하라고요?”라는 되물음이다. 스무 살 전후의 청소년을 만나면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분명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잘 따랐고 잘 해냈다.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고, 경쟁에서 살아남으라고 해서 우위에 섰지만 막막함이 앞서는 이유가 궁금하다.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찾는 연습을 해야 하는 청소년 시기에 그들이 만나는 어른들은 항상 해법을 제공해 주었다. 그래서 질문을 자기에게 돌릴 필요가 없었을 뿐이다. 서울예술교육센터는 예술가와 만나 영감을 나누고, 테크놀로지의 본질을 찾고, 장르의 경계에서 관조와 참여를 결정하는 자발적인 질문의 공간이 되고자 한다.

도구워크숍: 도구의 본질에서 예술과 과학을 찾다

도구의 사용은 문명을 만들고 지식과 문화를 전승하고 인간 수명을 늘려왔다. 그것은 수많은 시도와 실패의 경험이 만들어낸 인류의 자



산이지 어떤 특정한 인물과 집단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교육'이란 꼬리표를 달고 있는 절대다수 프로그램의 배경에는 교육자의 패키지가 존재한다. 이유는 다름 아닌 효율성이다. 단시간에 많은 수의 피교육자가 단기 목표를 달성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패키지화된 교육에는 시도와 실패가 삭제될 수밖에 없다. 그 안에서 도구를 만나기란 힘들다.

서울예술교육센터에서는 도구위크숍을 통해 청소년과 '놀이'를 하고자 한다. 놀이의 필수 요소는 ①놀이 시간의 확보 ②도구와 또래 ③평가로부터의 자유 ④반복 ⑤놀이 공간이다. 즉, 자유로운 시공간 환경과 프레임 밖의 도구가 만날 때 놀이는 자연 발생한다.

서울예술교육센터는 전통적 매체의 도구(책·잡지·신문 등), 로테크(lowtech) 미디어 도구(필름·슬라이드·사진 등), 하이테크 미디어 도구(영상·사운드·VR 등) 등 다양한 도구를 놀이의 재료로 활용한

다. 놀이를 통해 청소년은 도구를 낯설게 바라보게 된다. 길이를 재는 도구, 성형을 위한 도구, 재료를 담거나 이동하는 도구라고 제안하면 그 도구를 어떻게 만들지 상상하게 된다. 하지만 자, 망치, 그릇으로 명명하면 상상력이 제한된다.

누군가 시킨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만들고 싶었다고 말하는 것. 어떻게 하면 될까 질문하면서 시도하고, 실패해도 평가받지 않는 상황. 패키지에 담겨 있지 않아서 도구를 찾아가는 경험. 이런 경험이 예술과 만나게 한다면 부가 이윤으로 창의력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서울예술교육센터는 청소년이 당연히 청소년기에 해야 마땅했던 질문과 자기 선택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틀리에로의 초대: 창작 과정의 본질에서 예술교육을 찾다

다양한 재료를 실험하고 이런저런 발상으로 작업하는 사람들이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들은 시도와 실패를 반복한다. 그리고 전시나 퍼포먼스를 통해 사람들을 만난다. 예술가는 동시대의 사회와 문화에 말을 건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은 그 작품을 흉내 내는 데 있지 않고 그 아틀리에에서 했던 시도에 있다. 재료를 찾는 과정부터 정제하거나 선택하고 작품이 되기 바로 직전까지가 '학습과 배움'의 코드다. 서울예술교육센터는 아티스트가 아틀리에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설계한다. 공간만으로 한정하는 아틀리에라기보다 초대의 장이 되는 일종의 상징이다. '아틀리에로의 초대'에서 예술가는 예술교육 커리큘럼이 아닌 창작 과정을 설계하고, 청소년은 예술가의 창작 과정에 공동창작자로 참여함으로써 예술의 가치와 의미를 찾는다.

오늘날의 예술교육은 본래의 의도와 조금 다른 그림이 펼쳐지는 경우가 많다. 입시를 위한 학원 스케줄에 밀려 선택은 한정적이고, 부모의 정보에만 의존하다 보니 청소년의 선호와 무관하고, 동기 없이 앉아만 있기도 한다. 이때 예술교육은 짧은 시간에 성과를 내야 하는 과제를 떠안고, 학습자의 동기를 조작적으로라도 부여하느라 정작 예술보단 자극적 요소와 방법론에 대해 몰입한다. 서울예술교육센터는 다시 예술교육의 본질로 돌아가 청소년이 예술을 탐구하며 사회와 접속하고, 예술가와 대화하며 세계관을 확장할 수 있는 경험의 장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자 한다.

글 조인호_서울예술교육센터 기획감독 사진 서울문화재단

2 서울예술교육센터 5층 공간

3 신용산역 인근에 위치한 서울예술교육센터 전경



형편없는 참견보다 더 나은 ‘아무거나’

2020 서울예술교육센터 콜로키움

알수록 새롭고 놀라운 10대들과 시원하게 서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 2020년 11월, 청소년을 정의하는 고정된 인식의 틀을 깨고 10대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이들을 새롭게 만나기 위한 어른들의 첫걸음이 시작된다. 서울예술교육센터의 출발점이 될 콜로키움 자리에서다.

이번 콜로키움은 “10대들이 지속적으로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은 어떤 곳일까?”라는 센터 운영진의 질문을 근간으로, 우리가 기존에 해온 형편없는 참견이나 조언을 겸손히 내려놓고 이 시간 10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보기 위해 무엇이든 새롭게 시도해 보자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게 기획한 <2020 서울예술교육센터 콜로키움>은 ‘형편없는 참견보다 더 나은 ‘아무거나’: 10대와 함께 서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11월 5일부터 6일까지 용산에 위치한 서울예술교육센터 5층 스튜디오에서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다.

운영 주체와 사용 주체의 거리 좁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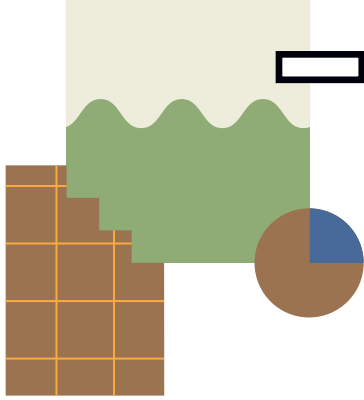
‘10대와 잘 소통하기 위한 준비 마당’이라는 의도를 담고 있지만 이번 콜로키움에는 10대들이 참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번 콜로키움은 앞서 말한 것처럼 ‘지금까지 습관처럼 해오던 10대와의 소통 방식을 무효화하고 고정관념으로 굳어진 우리의 생각과 마음부터 차근차근 점검해 보자’라는 어른들의 자성적 만남에서 의의를 찾고자 한다. 우리가 뿔어내는 메시지들이 어쩌면 그들에게는 유효하지 않은 ‘선소리’일 수도 있음을 인정하면서 센터가 가져야 할 진정한 함께 서기, 이해와 소통의 해법을 탐색해 보는 자리라 해도 좋을 것이다.

먼저 10대들의 활동에 주목하고 있는 젊은 문화예술 기획자를 초대해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관련 현황과 주요 이슈를 함께 점검했다. 또한 서울예술교육센터의 비전을 진 직원이 함께 찾아가는 ‘실무자 비전 워크숍’에 참여해 그곳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의제 키워드로 정리해 나갔다. 끝으로 중·고등학생 30여 명에 더해 자신의 청소년 시절을 허심탄회하게 나누어줄 20대 초반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문을 진행해 그들의 정체성과 관심사, 고민 등에 대해 귀 기울여보았다. 실제로 이 과정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취하고 있는 청소년이라는 개념에 대한 사회적 정의와 이해를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10대들이 풀어준 다양한 고민·질문·비판거리를 주요 키워드 삼아 콜로키움에서 다뤄볼 만한 주제를 3가지로 묶었는데, ‘다양한 관계 언어들 혹은 관계 맺기 방식’·‘유미미한 경험의 축적과 그것을 통한 성장’·‘나다움으로 가기 위한 자기 발견과 예술 간의 상호작용성’이 그것이다.

콜로키움을 구성하는 3가지 섹션-함께·천천히·나다움으로

콜로키움 첫 번째 섹션에서는 관계 맺기에 대한 다양한 관점 그리고 요즘 10대에게 익숙한 관계 언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해 보고자 한다.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한 가지는 청소년들이 추구하는 안전함, 편안함의 근간에는 대부분 관계 설정에 대한 긴장감이 스며 있다는 점이다. 10대와의 관계 맺기 방식과 고민, 혹은 자신의 경험이나 관찰을 통해 새로운 관계 맺기를 시도하거나 현대의 관계 언어를 키워드 삼아 작업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10대들에게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성장 혹은 다



1.2 콜로키움 준비를 위한 사전 회의 현장

양한 경험에 대한 욕구'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다양한 경험의 축적 혹은 유의미한 추억의 공유를 위해 필요한 환경은 어떤 것일지를 놓고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끝으로 세 번째 섹션에서는 자기 발견과 표현을 통해 진정한 나다움을 찾아가고자 하는 10대들의 갈망과 그러한 맥락 안에서 작동하는 예술의 상호작용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집단화·물개성화로 연결되는 모든 표현을 본능으로 밀어내는 세대이자 자기만의 멋, 취향을 만들어가고 싶어 하는 10대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가진 인간 존중을 향한 욕구가 아닐까? 진짜 나다움을 발견해 가는 과정 속 예술은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한다.

10대를 위한 시공간, 서울예술교육센터의 출발을 응원하며

어쩌면 내가 겪어왔기에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당연하게 여기던 10대에 대한 인식이 정작 당사자들의 취향과 개성을 위협하는 가장 왜곡된 선입견이었다는 깨달음, 현장에서 만나본 10대의 사뭇 진지한 의견과 질문을 통해 여지없이 깨진 교만까지. 콜로키움 준비 과정에서 인지한 내용이 도리어 세상에 대해 경직돼 있던 생각의 물꼬를 터준 것 같아서 고마움과 시원함을 느낀다.

누군가에게는 '쓸데없는' 난상토론처럼 보일지 몰라도 2020년 가을, 서울예술교육센터의 첫 콜로키움을 함께 준비해 온 이들은 적어도 같은 마음으로 서 있지 않을까? '누구나 '멋'대로 서는 홀로서기를 서로 지지해 주고, 성장으로 연결되는 경험의 시공간을 친철히 헤엄치면서, 모두가 '나다움'을 잃지 않아 편안한 우리가 돼가는, 그래서 언제나 다시 찾고 싶은 곳.' 서울예술교육센터가 이런 곳이 될 수 있도록, 본 콜로키움이 센터가 앞으로 견지할 태도와 유의미한 관계 맺기 방식을 찾아가는 데 꽤 '쓸모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글 전지영_서울예술교육센터 기획감독 사진 이재원





10대들이 즐겨 찾는 그곳엔 무엇이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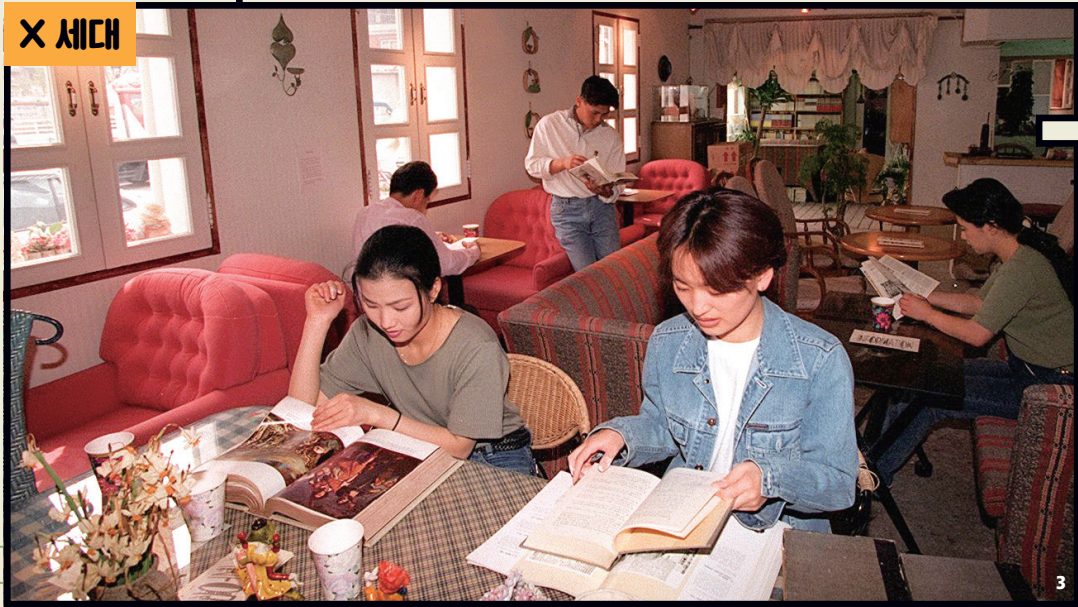
X·Y·Z 세대의 핫플레이스로 본 청소년 놀이 문화

우리 사회가 청소년 발달과 놀이의 관계에 주목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과 놀이를 표방하며 만들어진 전용 공간들도 기대만큼 많은 청소년을 불러들이지 못한 채 외형만 키워왔다. 그사이 청소년들은 어디에서 모여 어떤 놀이를 공유해 왔을까. 신인류의 출현으로 주목받은 X세대부터 디지털 네이티브라 불리는 Z세대까지 세대별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청소년 놀이 공간의 역사를 탐색해 본다.

노는 10대들은 어디로 갈까

지금도 기성세대가 보는 청소년의 놀이란 언제든 일탈의 위험을 안고 있는 행위다. 학생의 본분인 학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고 시간 낭비로 치부되기 일쑤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설립한 청소년 전용 공간이 새로운 문화예술 체험 기회와 놀이의 장을 표방하면서도 정작 10대의 관심과 생활에서 멀어진 것은 기성세대의 관점으로 청소년 전용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는 놀이를 규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2020년 현재 50대 전후인 기성세대가 청소년이던 시절, 젊은이들의 놀이터란 일탈 혹은 탈선의 장소였다. 이 세대는 청소년의 건강한 신체 활동과 사교의 장으로 등장한 롤러장이 탈선을 부추기는 장소로 변질되고 유흥업소로 분류돼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 과정을 경험했다. 1980년대에 전자오락실은 어디에나 있었지만 청소년에게는 선생님과 부모님의 눈을 피해 출입해야 했던 일탈의 공간이었다. 이성교제나 취미 활동은 대학에 간 이후로 미루고 넘기지 않은 용돈을 아껴 쓰라고 교육받으며 자기들만의 놀이 문화를 갖지 못한 베이비

X 세대



붐 세대가 이후 세대의 청소년 공간을 온전히 놀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지 못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

조국 근대화가 최우선 과제인 사회에서 생산 지향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전 세대와 비교하면, X세대는 신인류의 출현이라는 설명이 자연스러울 정도로 소비 지향적이다. 이후 등장한 Y세대, Z세대도 이름은 달라졌지만 항상 소비와 유행을 주도해 온 존재다. 소비와 유행은 1990년대 이후 시대별로 청소년이 어디로 모이고 무엇을 하며 노는지 설명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됐다.

X세대의 감성과 ‘민들레영토’

X세대는 1970년대에 태어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성장기를 보냈다. 경제적 풍요를 바탕으로 문화의 혜택을 적극적으로 누리고 생산보다 소비에서 즐거움을 찾는다. 공동체 정신보다 개인주의가 두드러지고 자기주장이 강해서 어디로 튈지 예측이 불가능한 존재, 규정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X라는 문자를 붙인 세대다. X세대의 강한 자기주장과

1,2 1980년대를 배경으로 10대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에는 어김없이 이들의 놀이 문화와 공간이 등장한다. 영화 <싸니>(사진1)와 <풍행제로>(사진2)에서는 1980년대 청소년의 놀이와 일탈, 롤러장의 모습 등을 엿볼 수 있다.

3 1996년 신촌 민들레영토의 모습. 1인당 문화비 몇천 원을 내면 카페 공간과 음료를 즐길 수 있었다.(사진: <조선일보>, 1996)

새로운 감성은 새로운 소비 트렌드와 유행을 만들어냈다. ‘민들레영토’는 감성 소비를 추구하는 X세대에게 각광받은 대표적 공간이다. 시험 기간이면 구립 도서관으로 모이던 친구들이 “민토 가자”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 돌이켜 보니 그때도 10대들은 줄임말을 즐겨 썼다. 민토라는 말을 모른다는 것은 유행에 뒤처지고 무리에 속하지 못한 아웃사이더라는 뜻이었기에 당시 10대들은 민토에 갔다. 풍요롭게 자랐다고 해도 어느 시대에도 청소년은 용돈이 부족하다. 1990년대의 민토는 가성비가 좋은 놀이터이면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체험을 하게 해주는 공간이었다. 장소 사용료로 몇천 원의 문화비를 내면 음료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었고, 다른 곳에서 구입한 음식도 자유롭게



게 반입이 가능했다. 장소 사용료를 문화비라고 칭한 이유는 이곳이 문화 카페를 표방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스터디 카페처럼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을 수 있고 소모임을 갖기에도 좋은 장소였다.

골목마다 하나씩 있던 개인 빵집이 자취를 감추기 시작할 무렵부터 2000년 전후로 스타벅스나 커피빈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가 등장하기 전까지 민들레영토는 X세대의 감성과 통하는 독특한 콘셉트로 인기를 끌었다. 동화 속 세상 같은 독특한 인테리어와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격식 있는 옷차림, 예쁜 종이컵과 식기들이 이질적인 감각을 전달했다. 수려한 외모의 아르바이트생들이 일한다는 소문이 민토의 인기를 더욱 높였는데 실제로 그 시절 민토에 드나들던 사람들

중에는 '단정한 용모'가 알바생 선발 조건에 있었다고 기억하는 이가 적지 않다. 지금처럼 아이돌 스타와 팬이 다양한 수단으로 가깝게 소통하는 팬덤 문화가 자리 잡기 전에 민토의 알바생은 청소년이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며 동경한 대상이었다.

2000년대의 동대문에서 코엑스까지

1990년대의 10대들이 민들레영토에 가기 위해 신촌과 명동으로 향했다면, 2000년대의 청소년들은 그곳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신촌, 명동, 압구정동 같은 전통 상권이 쇠락하던 시기는 동대문과 삼성동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선 시기와 맞물린다. 동대문 상권은 1998년과 1999년에 밀리오레, 두산타워가 연이어 문을 열면서 젊은 세대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민토 가자”는 말보다 “두타 가자”는 말을 더 자주 썼다.

2000년대 소비, 유행의 주역으로서 밀레니얼 세대라고도 불리는 Y세대는 X세대처럼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러면서도 유행에 더 민감하고 소비에 적극적이다. 어릴 때부터 컴퓨터를 접했고, 1990년

4 2000년 문을 연 삼성동 코엑스몰은 쇼핑과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핫플레이스'였다. (사진: 《헤럴드경제》, 2007)

5 〈2008 동대문패션축제〉의 일환으로 '알파걸 콘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 동대문 밀리오레 앞 무대(사진: 《뉴시스》, 2008)

6 경복궁을 비롯해 북촌과 서촌, 고궁 등에 가면 한복을 빌려 입고 사진 찍기에 한창인 청소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진: 《뉴시스》, 2019)



Z 세대

6

대 말 급속도로 확산된 인터넷을 빠르게 받아들여 활용한 세대다. Y 세대는 유럽발 최신 패션 트렌드가 거의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동대문이 새로운 유행의 메카라는 것을 바로 알았고, 두산타워와 밀리오레는 이들 Y세대를 적극적으로 불러모았다. 밀리오레는 아예 청소년 백화점을 표방하면서 옷뿐만 아니라 푸드코트까지 청소년을 겨냥해 저렴한 간편식 위주로 구성했다. 두타는 전 상가에 초고속인터넷 망을 구축한 것으로도 화제가 된 바 있다. 밀리오레와 두타 앞에서 열리는 행사는 청소년 고객에게 쇼핑과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다. 대중가수의 공연을 비롯한 각종 쇼와 축제가 끊임 없이 펼쳐지고 노래 자랑, 댄스 경연 등 10대의 흥과 끼를 발산할 무대가 마련되는 동대문은 굳이 쇼핑을 하지 않아도 즐길 거리가 넘치는 청소년의 해방구로 자리 잡았다.

쇼핑과 엔터테인먼트의 결합을 극대화함으로써 10대들의 또 다른 핫플레이스가 된 곳은 삼성동의 코엑스몰이다. 새천년을 맞아 문을 연 코엑스몰은 청소년의 놀이, 여가 활동이 갖는 특성에 정확히 부합하는 곳이었다. 코엑스몰은 도심 속 문화 쉼터를 표방하면서 상품뿐만

아니라 공간을 소비하도록 기획됐고, 비밀상의 놀이를 원하는 청소년들을 끌어들었다. 쇼핑, 외식, 문화와 레저 체험이 모두 가능한 복합 쇼핑몰로서 여가 시간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추구하는 놀이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매장마다 빠르게 선보이는 신제품과 신기술은 유행에 민감한 Y세대가 정보와 즐거움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갖게 했다. 이러한 복합쇼핑몰은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며 청소년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띠게 되고, 청소년 놀이 문화가 갖는 관계 지향적 특성까지도 조율한다.

SNS와 사진에 진심인 Z세대

1990년대 중반 이후 태어난 Z세대는 유년기부터 디지털 환경을 경험하며 자란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이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환경을 함께 겪은 직전 세대와 비교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데 전혀 거리낌이 없다. 이들은 디지털 기기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문화를 소비할 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데도 적극적이다.

문화 소비자이자 생산자인 Z세대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발굴해 공유하는 과정에서 재미와 보람을 느낀다. 어떤 경험에서 얻는 감상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타인의 취향과 가치관을 존중하는 게 이들의 규칙이다. 이들은 유행에 민감하지만 무작정 따르지 않는 정신, 이른바 ‘힙함’을 추구한다. 힙하다는 것은 낯설고 새로운 감각을 의미한다. 낡은 창고를 개조한 공간이 개성적인 성수동이나 낙후된 건물, 오래된 상점이 민낯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을지로가 Z세대의 명소로 떠오른 것은 낯선 것이 주는 설렘 때문이다.

Z세대에게는 낯선 설렘을 경험하고 사진으로 기록해 SNS로 공유하는 것 자체가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이고 놀이 문화다. 개성적인 사진을 얻을 수 있다면 어디든 찾아가는 이들에게는 번듯한 외형의 건물, 많은 사람이 몰리는 대형 몰, 전통 상권은 특별히 매력적인 장소가 아니다. Z세대가 찾아가는 곳은 오히려 한복을 빌려 입고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경복궁이나 북촌·서촌 거리다. 혹은 눈에 띄는 간판으로 손님을 불러모으는 곳보다 아는 사람만 들어오게 만들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가게, 작은 규모라도 독특한 콘셉트로 포토존을 꾸민 곳이다. Z세대 청소년에게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는 행위는 자기만의 개성과 이야기를 만들고 공유하는 재미있는 놀이이며 문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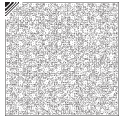
글 김문영_객원 기자 사진 <뉴스스> <조선일보> <헤럴드경제>

사람과 사람
문화인

**일단
시도할 것,
계속
질문할 것**

영화감독·작가 이길보라





“안녕하세요, 농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이 이야기꾼의 선천적 자질이라 굳게 믿고, 글을 쓰고 영화를 만드는 이길보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한 시간, 먼저 발표한 발제자의 소개를 받고
이길보라 감독이 등장해 간단히 자기소개를 했다.
10월 16일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지하3층 하늘광장에서 진행된
〈같이 잇는 가치〉 문화예술 오픈포럼 1일차 무대였다.
공식석상에서 그는 대개 같은 문장으로 자기소개를 한다.
거기엔 ‘농인 부모’ ‘이야기꾼’ ‘글’ ‘영화’ 그리고 부모님이 지어주신
멋진 이름 ‘이길보라’까지, 필요한 사항이 군더더기 없이 담겨 있다.
‘코다’라는 정체성을 반영해 글과 영화를 짓고
세상에 질문하길 주저하지 않는 그를 포럼이 시작되기 전 만나보았다.

소리가 반짝이는 세계로부터

10월 16~17일 양일간 진행된 서울문화재단의 〈같이 잇는 가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존을 모색하는 문화예술 프로젝트로, 담론 형성 자리인 ‘문화예술 오픈포럼’과 장애·비장애 예술인의 창작 프로젝트 3가지를 만날 수 있는 ‘전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길보라 감독은 16일 ‘일상의 조건’을 주제로 진행된 1일차 문화예술 오픈포럼에서 발제를 맡아 20여 분간 ‘당사자성’에 대해, 농인 부모님과 코다(CODA, Children of Deaf Adults, 농인 부모의 청인 자녀)인 자신의 경험담 및 이를 담은 창작 활동을 예로 들어가며 경쾌하고 재미있게 이야기했다. 장애를 말할 때 장애인만이 당사자가 아니라 장애인과 관계를 맺는 모든 이가 당사자임을 인지하는 것, 나아가 장애를 ‘차이’로 인정하고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발제 내용의 핵심이었다. 글로 옮기고 보니 딱딱한 메시지가 됐지만, 감독 본인이 흥미롭게 경험하는 세계를 그리는 조리 있는 이야기꾼으로서 청중에게도 흥미롭게 전했다.
‘재미’는 이길보라 감독이 다양한 창작 활동을 이어가는 데 중요한 요소다. 그는 수어로 소통하는 농인의 문화와 음성언어로

소통하는 청인의 문화를 모두 경험해 왔다. 부모님 덕분에 수어로 웅알이를 시작한 그는 양손을 펴고 손바닥을 위로 향한 채 손목을 좌우로 빠르게 흔드는(흔히 ‘반짝인다’고 표현할 때의 그 손동작) 수어 ‘박수’가 아름답고 재미있었고, 그래서 이 세계를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다. 부모님이 만나 사랑하고 가족을 이루기까지의 이야기와 일상, 그리고 코다로서 이길보라 감독 남매가 경험한 일들을 담아낸 첫 장편 다큐멘터리 〈반짝이는 박수 소리〉(2013)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영화를 본 관객은 아마도 자신도 모르게 쌓아온 내면의 잣대나 선입관이 허물어지는 경험을 했을 것이다. 경쾌하고 따뜻하게 말이다.

“〈반짝이는 박수 소리〉에는 일상적인 장면이 많이 등장해요. 밥을 먹고 커피를 내려 마시고 친척들이 모여 함께 제사를 지내고, 가족이 함께 이사할 집을 보러 가기도 하죠. 노래방도 가고요. 아주 평범한 에피소드인데, 그 주체가 농인일 때 어떻게 달리 보이고 또는 그렇지 않은지 느껴지실 거예요. 예를 들면 식사 장면에서 음성언어가 없어서 수저가 그릇을 건드릴 때 나는 달그락 소리가 유독 크게 느껴진다는지 하는 차이를 보며 ‘아이건 이렇게 다르구나’ 또 ‘이런 건 비슷하구나’ 경험하고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죠.”

들리지 않는다는 건 부족한 게 아니라 ‘다른 언어로 소통하고 세상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길보라 감독은 스물두 살에 친구를 통해 ‘코다’라는 단어를 알았고,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하는 다른 사람, 선행된 농인 문화 연구와 작업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어떤 안도감을 갖게 됐다. 그리고 같은 해, 농인의 국제 교류에 관심이 많던 아버지와 함께 미국을 방문해 농문화 축제 ‘데프네이션 엑스포(Deafnation Expo)’에 참여하고 세계 유일의 농인 고등교육기관 캘러멧대학을 둘러보며 정말 다른 세상이 있음을 발견했다. ‘시각언어를 사용하는 문화’ 속에서 오히려 청인이 소외감을 느낀 경험은 영화 〈반짝이는 박수 소리〉의 시작이 됐고, 코다의 정체성을 가진 이들과 연대의 기회를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기도 했다. 그렇게 대화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만난 이들과 함께 2019년에는 코다가 경험하는 삶의 이야기를 담은 책 《우리는 코다입니다》를 펴냈다.

“사람들은 코다를 특별하게 보기도 하는데, 저는 제가 가장 평

범하고 보편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 입장에서는 수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반면에 저는 농인의 세계는 잘 알지만 다른 장애를 가진 분들, 다른 문화권에 대해서는 무지하기도 해요. 각자가 가진 이런 차이에 대해서로 불편하지 않게 계속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예술가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

올해 이길보라 감독의 이름이 눈에 더 많이 띤 이유 중 하나는 지난 2월 그의 두 번째 장편 다큐멘터리영화 <기억의 전쟁>이 개봉해 관객과 만났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에 의해 민간인 학살이 일어난 풍니퐁넛 마을의 생존자 응우옌 티 탄 씨의 이야기를 따라간다. 소재나 무게감에서는 전작과 확연히 다른 작품으로 느껴지지만, 베트남 참전용사였던 할아버지의 이야기로부터 영화를 구상했다는 점에서, 작품의 모티브를 개인적 경험에서 얻고 있다는 공통점이 깔려 있다. 아울러 이 작품에서 주인공인 탄 씨와 함께 중요한 화자로 증언하는 덩킴 씨는 농인이다. 그가 수어로 증언할 때 전해지는 고요한 힘과 함께 관객은 전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체험하게 된다. “킴 아저씨는 저와 소통이 잘되는 분이였어요. 그건 제가 수어를 사용하기 때문만은 아니었는데, 킴 아저씨의 수어는 베트남 수어가 아닌, 언어 체계를 갖지 않은 사인(sign)이거든요. 아저씨는 농인으로 태어났지만 수어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전쟁은 한창이고 장애인들은 학교에 가지도 못했고, 구두담이로 돈을 벌며 생계를 이어야 했기 때문이죠. 한데 제가 그분과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해 얘기를 나눠보니, 양민 학살이 일어난 하미 마을에서 도망쳐 나오셨더라고요. 농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전쟁은, 역사는 어떤 것이었을까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자 중 한 분으로 모시게 됐어요.”

영화에서 탄 씨는 용기를 내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을 공개 증언하며 한국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 가족을 모두 잃은 피해자임에도 고통 속에 상처의 순간을 수차례 복기해야 하는 모습은 안타까움을 더하고, 결국 그는 한국인 참전자에게서도, 한국 정부로부터도 사과받지 못한다. 어렵게 던진 이야기가 어디에도 가닿지 못하고 되돌아오는 일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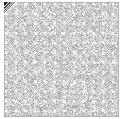
어쩌면 이를 기록하는 이길보라 감독 역시 창작 과정에서 계속 겪을 일일 것만 같았다. 무력감이 클 텐데 쉽게 해결되지 않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이유, 원동력이 궁금해졌다.

“힘들다고 생각했으면 예술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술가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고 거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바꾸고 싶지만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 목소리를 나 혼자 낸다면 정말 외롭고 힘들 것 같은데, 같은 생각을 갖고 연대하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믿어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들리고 보이게 하는 많은 활동도 넓은 의미에서 연대일 수 있고, 제가 영화를 만들면 그 영화를 보러 온 관객과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 역시 일종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말하고 필요한 질문을 던지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결과가 어떻든 시도가 중요하니까요.”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

그의 영화와 글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듯 이길보라 감독은 열일곱 살에 학교 수업을 중단하고 동남아시아로 배낭여행을 떠났다. 꼼꼼하게 계획해 부모님을 설득했고 여비는 편당을 받아 마련했다. 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책 <길은 학교다>와 영화 <로드스쿨러>를 세상에 내놓았다. 다큐멘터리 영화를 더 공부하고 배우고 싶어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에 진학했으며 2017년에는 네덜란드 필름아카데미로 유학을 떠났다. 하고 싶은 건 일단 시도했다. 뭐든 직접 부딪쳐 경험하며 세상을 터득해 온 부모님은 딸이 고민하는 순간 “괜찮아, 경험”이라는 말로 그의 시도를 응원했다. 행동은 당당하고 생각과 말은 명쾌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논리정연하게 전달하는 글을 쓰는 사람. “속하고 싶은 세계가 있었나”라는 우문에 “내가 가고 싶은

“예술가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고
거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결과가 어떻든 시도가 중요하니까요.”



판이 존재하지 않거나 너무 멀어 보일 땐 내가 직접 판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모이게 했다”는 현답을 낸다. 부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다. 물론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었을 테지만.

“남보다 일찍 경험했을 뿐이지 저도 또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걱정이 정말 많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올해 나온 저의 책을 읽어보신 독자분들이 위안을 얻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길보라가 거침없이 행동하는 것 같지만 삶의 큰 결정을 내릴 때 무수한 고민을 했구나 하는 점에서요.”

지난 8월에 발간된 책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서》에는 그가 네덜란드 필름아카데미로 유학을 떠나는 과정과 그곳에서 살고 공부하며 느낀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길보라 감독이 경험을 밑천 삼아 다음 경험을 만들어낸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이 솔직하고 담담한 언어로 적혀 있기에 코로나시대에 ‘대리 유희기’ 삼으며 위안을 얻는 독자가 많다는 소식에 감독도 흐뭇하게 웃었다. 그의 당당함이 부러운 이유는 한국 사회에서 ‘하고 싶

은 것을 하는’ 일 자체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사실 그 역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 ‘이걸 영화로 만들어도 될지’ 확신을 갖지 못해 수없이 고민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에서 많은 여성 창작자가 겪는 일이기도 하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위해 그는 무엇이 바뀌거나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몰았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섞인 공동체나 커뮤니티 공간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삶의 최고 가치는 하나가 아닌데,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서는 더욱) 물질만능주의로 흐르기 쉬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봐요. ‘이런 얘기를 해볼까’라고 하면 그건 돈이 안 돼, 안 팔려, 너무 작고 사소해, 좀 더 센 이야기를 해 라는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높죠. 우리는 한 개인에게 그의 인생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제대로 묻고 토론해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그런 걸 제대로 말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사회 환경이 마련돼야 한국 사회에서도 무엇이든 창작을 시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회라면 무엇이든 질문하고 시도하는 분위기는 만들어지기 힘들겠죠.”

그의 다음 영화는 ‘여성의 몸과 재생산권’에 관련한 이야기가 될 예정이다. “다양성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기본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선택할 권리, 내 몸이 변화하거나 변화하지 않을 권리”라는 그의 말에서 일관된 방향, 어떤 단단함 같은 게 느껴졌다. 참 이상한 일이다. 그가 걷고 있는 길은 어쩌면 탄탄대로에서 먼 길이지만 그가 부럽다. 세상이 쉽게 바뀌지 않을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지만 긍정적이다. 그의 행보가 돋보인다면 그건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일 것이다. 조금씩 천천히 오래 문을 두드리는 일을 그는 계속 경쾌하고 명쾌하게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번 문을 두드리는 게 어려울 수는 있지만 결국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봐요. 때로 한 곡의 노래, 한 권의 책이 누군가의 인생을 구원하기도 하잖아요. 거대한 세계를 뒤집어야 의미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바꾸는 것에서 변화는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건 정말 크나큰 힘이지요.”

글 이아림_객원 기자 사진 공간느루

기타로 내는 거문고 소리



“거문고와 가야금 닮은 소리를 찾으려 노력했어요.”

활동 기간만 10년이 넘는 베테랑 국악 싱어송라이터 상흠(본명 박상흠)이 7월 11일 발매한 첫 정규 앨범 〈마주한 거울〉의 준비 과정을 이렇게 소개했다.

이번 앨범엔 자신이 직접 작곡과 편곡을 마친 10곡을 담았는데, 특히 피아니스트 박성도, 일본인 퍼커셔니스트 다무라 료, 경기민요 소리꾼 여성룡, 드러머 양현모, 싱어송라이터 도빛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인 세션단만 봐도 앨범의 깊이를 짐작케 한다.

상흠은 가장 대중적인 현악기인 ‘기타’를 연주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전통음악의 소리를 구현할 수 있을지” 고민해 왔다. 그렇게 해서 기타의 줄을 ‘뜯고 누르는’ 방식을 발견했는데 이것을 ‘상흠표 컨템퍼러리 국악’이라 불렀다.

그는 지난해 발매한 디지털 싱글 ‘연장선’이 음악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하나의 점을 찍었다면, 이번 앨범은 더 뚜렷한 국악 요소와 다양한 장르를 결합해 독창성과 대중성을 겸비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그는 다루지 못하는 악기가 없을 정도로 폭넓은 스케일을 자랑하는데, 어쿠스틱 기타와 일렉트릭 기타, 콘트라베이스, 일렉트릭 베이스까지 모든 곡에 연주자로도 참여했다. 오랫동안 활동해 왔지만 단 한 번도 ‘뜨는 뮤지션’이었던 적이 없었기에 음악계의 냉혹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이번 앨범은 현대사회의 외로움과 불안, 현실과 꿈이 마주한 삶에서 자신을 위로한 곡들로 채웠다.

홍대 앞과 청계천에서 거리 아티스트 활동을 통해 음악적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온 그가 디스코부터 월드뮤직, 재즈, 리듬 앤드 블루스(R&B), 유로사운드, 대풍류까지 장르를 넘나들던 광복 행보를 넘어 이제는 어떤 길을 꿈꾸고 있을지 궁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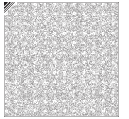
“길거리 소음도 누군가에게 음악이 될 수 있듯이 현대적이고 독창적인 표현 방식에 초점을 둔 국악을 호모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국악을 연주하는 게 꿈이에요.”

상흠

국악 싱어송라이터



상흠은 ‘더뉴재즈밴드’에서 콘트라베이스 연주를 시작으로 ‘비버의숙제’에서 기타와 보컬을 맡고 ‘킹스 턴루디스카’에서 일렉트릭 베이스를 연주했다. ‘보쌈다방’과 ‘무드살롱’에서 리더를 맡았다. 서울문화재단의 2019 아트서울 기부투게더, 2020 예술창작활동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판소리 사랑한 영화감독

“한도 많고 흥도 많은 우리 정서가 집약된 전통음악 아닐까요?”

전통음악을 소재로 한 뮤지컬 영화 <소리꾼>의 메가폰을 잡은 조정래 감독은 영화의 흐름을 주도한 판소리를 이렇게 정의했다. 지난 7월 1일 영화를 개봉한 뒤 동료 국악인뿐 아니라 수많은 예술가의 지지와 응원에 힘입어 “<서편제> 이후 가장 한국적인 판소리 영화가 컴백했다”는 평을 받은 작품이다.

“판소리를 사랑한 영화감독”이라고 소개한 그는 그렇게 부른 계기를 대학 시절에 작성한 리포트로 기억했다. “<서편제2>라는 시나리오를 써서 언젠가 임권택 감독님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학생 신분으로 어떻게 다가갈 수 있었겠어요? 소심하게 있다가 제대 뒤 작업 시간에 ‘회심곡’을 썼는데, 이게 영화의 모티프가 됐어요.”

영화학을 전공한 그는 졸업 뒤엔 동문 후배인 최용석 소리꾼과 공동으로 설립한 ‘바닥소리’에서 활동하면서 판소리의 매력에 빠졌단다. 여기에서 그는 고수를 맡았는데, 어린이 창작 판소리와 소외당한 이들을 위한 공연 등을 이어오면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도 만났고, 국악인들과 교류를 이어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학창 시절부터 미쳐 있다시피 했던 판소리 덕분에 그는 한국적인 영화를 찍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자신의 첫 장편영화인 <두레소리>가 국악을 소재로 한 것이라든지, ‘위안부’의 사연을 담은 <귀향>의 음악이 대부분 국악으로 채워진 것도 여기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거대 자본이 투입된 블록버스터 위주로 상영관을 내주는 영화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요즘같이 힘든 때 힐링이 되는 한국적인 영화도 있는데, 어려운 때일수록 자본의 논리가 더 강화되는 거 같아요. 판소리에 대한 이해만큼 우리 영화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글 이규승·서울문화재단 흥보IT팀장

조정래 영화감독



조정래는 중앙대학교 영화과를 졸업했으며, 2000년 단편영화 <종기>로 데뷔했다. 제53회 대중상영화제에서 신인감독상(2016)을, 제51회 휴스턴국제영화제 심사위원특별상(2018)을 받았다. 주요 작품으로는 <두레소리>(2011), <파울볼>(2014), <귀향>(2015), <귀향, 끝나지 않은 이야기>(2017), <예음길>(2019), <소리꾼>(2020)이 있다.

그대가
개와 늑대의 시간에
호랑이가 없는
인왕산에서
돌이킬 수 없고
되돌아갈 수
없는 막다른 계절을
맞아하였을 때
경직된 힘줄을
느스히 하고
긴 호흡으로
잠시라도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또, 쉬이 한 해를
넘을 수 있다

“인왕산 모르는 호랑이가 없다”는
옛말이 있을 정도로 인왕산에는 호랑이가 많이 살았다 한다.
서울의 명산 4내산(內山)의 하나로
기암괴석과 암벽이 많아 경관이 빼어난 산이다.



감각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예술창작 방법론 탐구와 시도

〈같이 있는 가치〉오픈포럼 ‘창작으로의 연대’

〈같이 있는 가치〉는 서울문화재단 잠실창작스튜디오에서 2019년 시작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존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젝트이다. 2020년 〈같이 있는 가치〉는 크게 2회의 오픈포럼과 3개의 기획전시로 구성되었다. 오픈포럼은 ‘일상의 조건’(10월 16일)과 ‘창작으로의 연대’(10월 17일)를 주제로, 장애·비장애인의 공존을 위한 담론 형성과 장애예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창작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상의 영역에서 다양한 당사자의 목소리를 모은 1일차 포럼에 이어, 2일차 포럼에서는 장애·비장애 예술인이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창작을 지속해 나갈 것인지에 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중에서도 퍼포머 김원영과 프로젝트 이인이 협업한 〈무용수-되기〉와 ‘여기는 당연히, 극장’이 제작한 〈도착되려 하는 언어들〉 공연 이후 진행된 ‘오픈토크’의 내용을 소개한다.

일시 2020년 10월 17일(토) 오후 19:30~21:00
장소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하늘광장
모더레이터 김지수 극단 애인 대표
대담 안경모 연출
구자혜 〈도착되려 하는 언어들〉작·연출
라시내 〈무용수-되기〉안무 및 연출
주최·주관 서울문화재단 잠실창작스튜디오
공연 영상 youtube.com/sfacmovie

※공연 영상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튜브 채널 스팍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무용수-되기

퍼포머 김원영, 최기섭 | 안무 및 연출 라시내, 최기섭 | 드라마투르기 하은빈 | 사운드 목소 | 무대감독 김석기 | 조명감독 윤지영 | 음성해설 인의주 | 음성해설 자문 (주)사운드플렉스튜디오 | 제작 김원영×프로젝트 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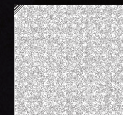
도착되려 하는 언어들

퍼포머 최순진, 조경란, 전박찬, 장윤실, 이리, 박수진, 김효진 | 작·연출 구자혜 | 조연출 류혜영 | 사운드·자막 목소 | 조명감독 윤지영 | 무대감독 김석기 | 프로듀서 김진이 | 수어통역 김홍남 | 영어번역 이리 | 제작 여기는 당연히, 극장

김지수 안녕하세요. 오픈토크 진행을 맡은 김지수입니다. 저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고요.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스카프를 하고 있고 청바지에 흰색 운동화를 신고 앉아 있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라시내 연출, 구자혜 연출, 맨 오른쪽에는 안경모 연출이 앉아 있습니다.¹

무용과 연극이라는 다른 장르의 두 공연을 보면서 언어, 번역, 획득, 주체, 이런 몇 가지 단어가 계속 생각났어요. 사실 장애도 개인의 문제와 고통으로만 여겨지다가 사회적인 언어를 획득하고 나서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안에 있다는 것이 통용됐고요. 장애를 갖고 있는 당사자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사회를 변혁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면서 주체로 활동하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장애예술 또한 비슷한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사회 안에서 예술의 한 장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공연인 라시내 연출의 〈무용수-되기〉를 보면서, 사실 저는 무용에 대해 잘 모르거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무용수 두 분이 나온 공연은 처음이었는데요. 〈트리오 에이〉(Trio A, 1966)²를 김원영 님이 번역하고, 그것을 최기섭 님이 함께하는 과정에서 변주가 일어나면서 아주 다른 신체 조건을 가진 두 분이 때로는 같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몸이 보이기도 하는 장면들이 신기했어요. 준비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이나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누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시내 저는 <무용수-되기>를 안무하고 연출한 라시내입니다. 객석에서 보시기에 김지수 님 왼쪽에 앉아 있고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고 단발머리에 노란색 염색을 한 여성입니다.

<트리오 에이>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김원영의 몸으로부터 시작한다, 김원영의 몸이 어떤 춤을 출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사실 현대무용계에서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닙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무용수의 몸으로부터 시작하는 작업을 해오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저희 내부에 있었고요. 그때 떠올린 것이 이본 라이너(Yvonne Rainer, 1934~)였어요. 무용사적으로 몸의 해방이나 관습을 철폐하는 상징으로 라이너가 존재하지만, '과연 민주주의의 몸이라고 했을 때 정말 무용사에서 해방이 완성됐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두 번째는 라이너가 꿈꾼 민주주의의 몸이라고 하는 이상을 지금 여기에서 좀 더 급

진적으로 한 번 더 실현해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이미 있는 동작을 번역해서 재현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저희가 나눈 이야기 중 인상 깊었던 것은 '장애 무용이 꼭 해야 하는, 할 수 있는 과제가 있을 것이고 그것은 몸의 문제일 것'이라는 김원영 님의 말이에요. 사실 계속 그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이야기로부터 출발하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김지수 두 번째로 <도착되려 하는 언어들>의 구자혜 연출님께 질문드릴게요. 최근 저는 구자혜 연출님의 <여기는

10월 17일 진행된 오픈포럼 '창작으로의 연대'에서 공연 후 이어진 오픈토크 현장. 행사 전 과정에서 수어통역이 진행됐다.

1 본 포럼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발제자가 자신과 행사 참여자들의 인상착의를 직접 설명했다.

2 이본 라이너가 연습실에서 개인적으로 행하던 동작을 6개월 동안 다듬어 1966년 1월 저드슨 교회에서 <마음은 근육이다, 1부: 트리오 에이(The Mind is a Muscle, Part I: Trio A)>라는 제목으로 초연한 포스트모던 댄스의 상징과도 같은 작품이다. 초연에서 3인의 무용수가 출연해 같은 움직임을 시차를 두고 4분 30초 정도 수행한 이후에는 3인무에 머물지 않고 다양하게 변주되고 있다. <무용수-되기>에서는 1978년 8월 14일 16mm 필름으로 촬영된 라이너의 솔로 버전이 상영됐다.

참고 정옥희, 거장이 되어버린 반항아: 이본 라이너 '트리오 에이', 《월간 객석》 2018년 12월호.



오픈토크에 앞서
진행된 공연
〈무용수-되기〉(위)와
〈도착되려 하는 언어들〉
장면

당연히, 극장)을 공연할 때마다 보게 됐는데요. 공연을 계속 보신 분들은 공감할 것 같은데, 다음 공연으로 이어질 때마다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함께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지체장애인이지만 눈을 감고 들어보기도 하고, 자막만 보기도 하고, 수어통역사만 보기도 하고, 다양한 감각으로 연극을 본 경험이 있거든요. 구자혜 연출님의 작업 안에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도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작업을 하는 데 따른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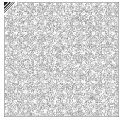
과 이번에는 어디에 중점을 두었는지 궁금합니다.

구자혜 저는 구자혜라고 하고요. 객석 기준으로 라시내 님 왼쪽, 안경모 님 오른쪽에 코르덴 쥐색 셔츠 안에 검은색 폴라티를 받쳐 입고 검은색 진에 갈색 위커를 신고 코르덴 청색 비니를 쓰고 있습니다. 공연마다 다루는 이슈가 다르고 그것에 따라 공연의 양식이나 속성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 음성해설, 수어통역, 자막이 극 안에서 어떻게 같이 작동할 수 있을지 찾아야 하는 것, 그리고 이전 공연에서 연출로서 발견했지만 해결하지 못한 혹은 새롭게 발견한 것을 다음 공연에서 해결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김지수 안경모 연출님은 공연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질문하고 싶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안경모 안녕하세요. 안경모입니다. 저는 객석에서 보시기에 왼쪽 끝에 앉아 있고요. 안경을 쓰고 있고, 날씨가 춥다고 해서 감색의 두꺼운 옷을 입고 왔습니다. 바지는 밤색이고 하늘색 운동화를 신고 앉아 있는,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가고 있는 연출가입니다.

오늘 본 두 공연이 소통과 번역이라는 단어를 계속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공통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먼저 라시내 연출님의 〈무용수-되기〉와 관련해서 소감과 더불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50여 년 전의 민주주의의 몸이라는 것을 지금 2020년으로 가져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한국 사회는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거쳤고, 우리는 민주주의 틀 속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의식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민주주의인지 몰았을 때 사실은 많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50여 년 전의 작품으로부터 현재 창작의 출발을 잡고 있는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질문이 생기는데요. 라이너의 작품 〈트리오 에이〉를 다시 번역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김원영 님의 몸을 통해 번역되고 다시 최기섭 님의 몸을 통해 재번역되는 과정 속에서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몸의 독립성, 주체성, 자기창작성이



라는 부분은 이 공연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떤 고민을 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라시내 이미 꽤 오래전에 몸의 해방을 이야기했지만, 몸의 해방이라고 하는 보편의 언어를 자처하면서 그 해방이 ‘어떤 특정한 몸의 해방은 아니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었고요. 그리하여 모든 몸의 해방을 지금 여기에서 실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보다 더 급진적인 몸들을 실현하고 싶었어요. 사실 저는 주체와 대상이라고 하는 틀에서 자신을 주체로 세울 때 비로소 가능한 주체성이 아니라 그런 행위로는 포섭되지 못하는 어떤 실재하는 몸의 층위에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에 과거의 것을 재현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시간성 속에서 살고 있는지 많이 생각했어요. 사실 무용수를 주체로 세우면 주체를 세우는 행위 속에서 관객은 객체가 되고, 대상이 되는 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굴레로 포섭되지 않는 어떤 몸의 순간으로 가고 싶었는데, 잘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안경모 덧붙여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연습 과정에서 기존의 안무가와 무용수의 관계에서 생기는 위계성을 탈피해 무용수 개개인의 개성과 표현력을 구성하는 안무 체계를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김원영과 최기섭의 몸을 통해 현상성을 구현하는 데 집중했다면 춤의 구성을 이끌어내는 원리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요. 보통 안무가나 무용수들은 자기 창작 과정에서 음악을 해석하는 방식이라든지 즉흥으로 한다든지 춤의 구성을 위해 어떤 정서에 집중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의식적 사유를 하는 등 그들 나름의 안무 구성의 원리 체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작품을 구성하면서 어떤 원리를 활용했는지 궁금합니다.

라시내 일단 즉흥을 통해 어떤 움직임이 실제로 가능한지와 좋은 움직임, 우리가 모르는 움직임을 많이 찾았고요. 즉흥을 통해 발견된 부분은 솔로는 꽤 많지만, 마지막 장면에서는 둘이 동일한 스킴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안무화해서 고정하는 과정이 사실 굉장히 어려웠어요.

〈무용수-되기〉라는 것이 양날의 검 같은 측면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음악의 해석을 통해서 한대거나 어떤 주제를 구현하거나 표현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가 어디까지이고 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찾아가는 것이 연습의 과정이었어요. 또 한 가지 재미있었던 건, 몸이 부분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성을 가진 전체라는 것을 어떻게 의식하면서 움직일 수 있고, 그럴 때 어떻게 움직임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지 찾았는데요. 사실 현대무용을 전공하고 무용수와 안무가로 활동하는 최기섭 님보다 김원영 님이 어떤 의미에서는 훨씬 더 상체의 움직임에 따른 연결성과 가동성도 좋고, 자신의 움직임을 잘 자각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도록 장면을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안경모 이어서 구자혜 연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착되려 하는 언어들〉은 언어철학적 질문이 작품 안에 많이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결국 언어는 각기 다른 맥락을 가진 어떤 체계이고, 그래서 흔히 텍스트라는 단어를 쓰고 그것에 연장해서 콘텍스트라는 맥락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정작 이 〈도착되려 하는 언어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은 텍스트가 되기 이전의 원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왜 고통, 절망, 수치심이라는 단어로 집약해서 원형성을 구성하려고 했는지 공연을 보면서 질문으로 떠올랐습니다.

구자혜 사실 언어철학의 관점에서 대본을 쓰거나 연습을 하는 것은 아닌데요. 1막이 일종의 페이크(연극적 장치)였는데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어요. 전달 불가능성, 번역 불가능성보다는 연극을 하면서 감당해 온 저희의 지난한 고민을 담아봤는데요. 저희가 전달하고 도달하려고 하는 힘과 의도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100%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사실 연극을 하면서 관객 분들에게 도달하려고 하면 할수록 극장 밖에 실재하는 어떤 사람이 저희에게 더 큰 이슈이기 때문에 결국 수신과 발신의 문제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티푸리다요폴로 씨

의 책 《고통의 주체로 승인받기 위하여》를 몇 겹의 번역을 통해 이 공연 안에서 다시 코딩된 매개를 통해 관객에게 전달하려고 하면 할수록, 티푸리다요골로 씨가 처음 책을 썼을 때 목도한 최초의 발신자에 대한 생각을 거둘 수 없었고요. 객석에 전달하려고 하면 할수록, 연극적으로 코딩된 언어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미학 안에서 작동하면 할수록 사실 당사자, 극장 밖에 실재하는 인물의 고통은 연극 안에서 미학이라는 미명하에 소비돼요. 저 역시 작가로서 희곡을 쓰면서 처음에는 목도한 것에 대해 쓰기 시작하지만 머릿속에서 마음껏 이미지화하면서 예술적 소비를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배우들은 연기하면서 나는 그냥 조경란인데 극장 밖에 실재하는 당사자 안에 들어가서 연기하는 것에 대해 몇 년간 고민해 오면서 연기의 방법론에 골몰해 왔고요. 이 오픈포럼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음성해설, 자막, 수어통역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실험해 보는 동시에 저희의 고민과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번역과 전달과 매개라는 표면적인 키워드를 두고 그 안에서는 ‘최초의 발신자가 누구인가’라는 고민을 풀어보고 싶었어요. 마침 티푸리다요골로 씨가 쓴 책이 아이의 고통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책 안에 나와 있는 단어가 아이의 고통, 수치심, 모멸감인데요. 보통 수치심과 모멸감은 아이의 것이라기보다는 어른의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의 고통에서 가장 멀어 보이는 단어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안경모 작가는 시대의 상처에 조심스럽게 메스를 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메스를 댈 때마다 ‘온전히 잘 댈 수 있을까, 잘 봉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런 근원적인 질문이 구자혜 연출님의 세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연결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접근 자체가 반갑고 그 작업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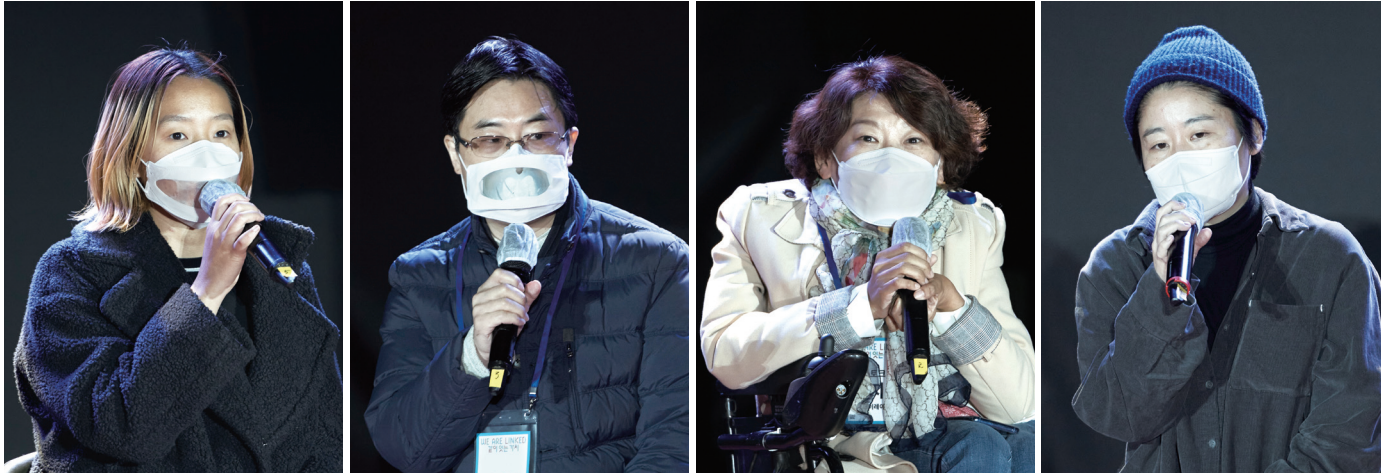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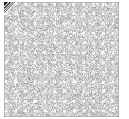
두 번째 질문을 이어가자면 ‘여기는 당연히, 극장’에서 지향하는 공연 형식이 수어와 음성해설을 동반하는, 소통 불가능하지만 소통을 갈망하는 언어의 유니버설 디자인

같고요. 사실 우리가 사고를 언어로 정리한다고 하지만 한편으로 언어에 의해 사고 체계 또한 변화되는 부분도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소통 불가능한 다원적이고 다중적인 언어와 사고 체계를 갖고 있는 우리 시대의 모습을 하나의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틀로 묶어내는 것이 다원성을 단일한 세계로 축소하는 과정이 될 수 없는지 의구심을 가져보기도 했어요. 그런 고민에 어떻게 접근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구자혜 저희 공연을 ‘언어 연극’이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연극적 구현과 재현보다는 관객에게 어떤 개념을 공연 시작 전에 걸어주고 같이 걸어 들어가 보는 연극을 하고 있어서 ‘언어 연극’이라고 명명하시더라고요. 또 하나, 말이 되게 많은데 빠르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음성해설, 자막, 수어통역이 들어가면 정보의 과잉이라는 우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관객은 공연을 따라가기가 조금 용이해졌다는 말씀을 하셨고, 공연이 계속 진행되면서 관객은 주체적으로 선택해서 공연을 감각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보가 많으면 관객이 혼선에 빠지거나 피로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각자 알아서 선택해 공연을 즐기더라는 얘기였습니다.

김지수 초반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있지만 다른 감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물론 원하지 않는 정보를 싫어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다음으로 객석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문영민 저는 장애예술을 연구하는 문영민입니다.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번역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수어통역이나 화면해설로 번역이 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그 작업 과정을 통해 움직임이 번역되는 측면을 고민하고 있고요. 앞에서 어떤 분이 그 과정을 번역이 아니라 굴절된다고 말씀하셔서 ‘굴절’이라는 단어가 계속 마음에 남아 있는데요. 굴절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똑같이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조금씩 변주되는 것 같아요. <트리오 에이>를 김원영 님



이 굴절시키고, 김원영 님의 움직임이 최기섭 님이 굴절 시키셨다고 생각하는데, 굴절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김원영 님이 비장애인의 움직임을 똑같이 따라 하려고 했다면 계속 제약이 쌓이고 최기섭 님이 따라 할 때는 제약이 더 쌓였을 것 같은데요. 저는 마지막에 계속해서 따라하는 과정을 통해 ‘자유도’ 같은 것이 더 쌓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반사가 아닌 굴절의 힘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김원영 님이 〈트리오 에이〉를 보고 어떤 굴절 과정을 통해 번역하려고 했는지, 최기섭 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 김원영 님의 장애를 가진 몸을 굴절하려고 했는지, 그 원칙을 좀 더 곱씹히 탐구하면 무대 위에서 장애인의 몸이 갖는 제약의 은유를 해체하고, 좀 더 자유로운 몸을 찾을 수 있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출할 때 굴절 과정에서 좀 더 집중하려고 했던 점을 여쭙보고 싶습니다.

라시내 영상 속에 춤추는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최대한 파악하고 움직임을 따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라이너가 이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가장 동일하게 다가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차이와 차이 속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차이가 무화되고, ‘어차피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무엇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

는 딜레마 상황에서 차이와 동일성, 반복과 모방, 이런 키워드가 저희를 끌고 갔어요. 그래서 그런 모티프를 마지막 장면에서도 사용했고 집중했다고 생각하는데 최대한 동일하게 동일한 것을 반복하려는 노력 속에서조차 발생하는 차이, 혹은 그런 차이를 계속 만들어나가고 차이에 집중해 보았을 때 ‘동일함의 부정으로서가 아니라 차이 자체의 차이로서 존재하는 차이에 다가갈 수 있을까,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생겼어요. 작업 과정에서도 저희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계속 동일성의 함정에 빠졌거든요. 연습이 반복의 과정이다 보니, 안무가는 무용수에게 계속해서 동일하게 반복할 것을 요구하고, ‘지난번과 다르다, 왜 달라졌느냐’는 이야기를 하게 돼서요. 반복 혹은 모방 혹은 굴절, 무엇이든 간에 동일성과 차이의 경계 속에서 계속 함정에 빠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목표점을 찍고 했다가보다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이게 아닌가, 우리가 지금 너무 동일성에 끌려가고 있나, 너무 유사한가, 너무 차이가 나나’,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김지수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픈토크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사진 서울문화재단

(왼쪽부터)
라시내
〈무용수-되기〉안무 및
연출,
안경모 연출,
김지수
극단 애인 대표,
구자혜
〈도착되려 하는 언어들〉
작·연출

코로나 시대, 우리는 ‘메일’로 연결된다

콘텐츠 유통·소비의 새로운 방식 ‘메일링 서비스’

바야흐로 ‘메일링 서비스’ 춘추전국시대다. 창작자가 구독료를 지불한 독자 개개인의 이메일로 자신의 콘텐츠를 보내주는 메일링 서비스는 구독경제 시대를 견인하는 거대한 물결 중 하나다. 월 1만~2만 원 남짓으로 짧은 시 한 편에서부터 그림과 음악까지 온갖 콘텐츠를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여기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면 접촉이 줄어든 비대면 시대에 메일링 서비스는 창작자와 독자의 연결을 확인해 주는 소통의 중요한 창구다.

메일링 서비스에서는 출판사나 언론 같은 기성 매체의 진입장벽을 통과할 필요 없이 그 나름의 이유로 구독을 선택한 독자와 창작자가 일대일로 연결된다. 2018년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월 1만 원의 구독료를 받고 직접 쓴 에세이를 메일로 보내준 ‘일간 이슬아’의 성공 이후, 메일링 서비스는 지금 여기 모든 창작자가 꿈꾸는 가장 아름답고도 혁신적인 소통 방식이 됐다. 물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이 오롯하게 작가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은 덤이다.

중개자를 거칠 필요 없이 ‘이메일’이라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하기만 하면 되는 장점 덕에 메일링 서비스는 최근 미등단 작가나 신인 작가들이 재능을 펼칠 기회 창구가 됐다. 그러나 사실 이메일을 통한 콘텐츠 구독은 새롭게 등장한 방식이 아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기업이나 시민단체들은 오랫동안 ‘뉴스레터’라는 이름으로 고객이나 후원자들에게 소식을 보내왔고, 2001년부터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고도원의 아침편지’ 역시 이 같은 ‘메일링 서비스’의 고전이다. 최근에는 사회 현안을 요약해주는 ‘뉴닉(NEWNEEK)’, 사회 초년생에게 필요한 금융경제 소식을 전해주는 ‘어피티(UPPITY)’를 비롯해 많은 미디어 스타트업이 이메일을 활용해 저널리즘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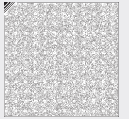
메일링 서비스의 성공 전략은 작가의 유명세나 출판사

의 이름값에 있지 않다. 오히려 ‘계급장 떼고’ 붙는 판인만큼 기존 출판계가 포착하지 못한 신선하고 독창적인 신인 작가들이 더 경쟁력 있는 모델이다. 이 같은 가능성을 엿본 다양한 창작자들이 개성을 앞세워 판에 뛰어 들고 있다.

‘글발’ 탄탄한 창작자들의 성실·정직한 활로

‘메일링 서비스’를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늘 지면의 청탁을 기다려야 했던 기등단 시인과 소설가들이다. 2016년 《문학과사회》 신인문학상을 수상한 강혜빈 시인은 10월 한 달 동안 편지 형식의 메일링 서비스를 선보였다. 2016년 등단해 2017년 김수영문학상을 수상한 문보영 시인은 2018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일기 딜리버리’를 운영해 오고 있다. 한 달 구독료 1만 원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일기가 전송된다. 이 중 매달 첫 번째 원고와 마지막 원고는 전자메일이 아닌 일반 우편으로 봉투에 담아 배송된다.

소설가들은 전형적인 문학의 틀에서 벗어나 색다른 글쓰기를 시도하고 있다. 2020년 《한국일보》 신춘문에 당선자인 차도하 시인은 자작시와 함께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시를 낭독한 녹음 파일도 함께 보내는 ‘목소리 메일링 서비스’를 선보였다. 2020년 《서울신문》 신춘문에 당선자인 이원석 시인은 일주일에 한두 통씩 총 100통의



- 1 클래식 음악 추천 메일링 서비스 '어쿠스틱 위클리'
- 2 금융·경제 소식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해 사회 초년생의 호응을 얻은 서비스 '어피티'
- 3 일러스트레이터, 작가, 다큐멘터리 감독이 의기투합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서비스 '일간 매일마감'
- 4 메일링 서비스한 콘텐츠를 엮은 책 《언제나 양해를 구하는 양해중 씨의 19가지 그림자》

편지를 보내는 '편지 100통을 보냅니다' 메일링 서비스를 진행했다. '글밭'이라면 뒤질 수 없는 비평가들도 가세했다. 영화 저널리스트 김현민은 매주 목요일 영화 관련 에세이를 보내주는 '목요일 어떻게습니까'라는 이름의 메일링 서비스를 연재하고 있다.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의 창작자가 의기투합한 경우도 있다. '일간 매일마감'은 일러스트레이터 이다, 작가 모호연, 다큐멘터리 감독 김과 지민 4명이 매일 2편의 원고를 보내준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명의 작가가 번갈아가며 하루 한 편의 에세이를 메일로 보내주는 에세이 구독 서비스 '책장 위 고양이'는 시즌2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최근 시즌3를 준비하고 있다. 시즌1에서는 김민섭·김흔비·남궁인·문보영·오은·이은정·정지우 일곱 명의 작가가 모였고, 시즌2에서는 김겨울·햇펠트·박종현·이목돌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그림·영화·음악...확장하는 메일링 서비스

꼭 글만 선보이라는 법도 없다. 뮤지션 이랑을 중심으로 무려 30명의 창작자가 힘을 합친 '엘리바바와 30인의 친구'는 시인, 소설가, 일러스트레이터, 사진가, 요리사, 만화가, 회화가, 판화가, 음악가 등이 각자의 전공을 살린 레시피, 오디오북, 만화, 일러스트 등 한 달간 30개의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였다. 일러스트레이터 봉현은

휴대폰·데스크톱 배경화면으로 소장 가능한 고화질 그림을 보내주는 '월간 월페이퍼'를 지난 9월까지 6개월간 진행했다. 클래식 음악부터 단편영화까지, 자신들만의 감각을 내세워 '추천'을 서비스하기도 한다. '어쿠스틱 위클리'는 클래식 음악 한 곡을 선정해 이에 대한 설명과 관련 영상 등을 함께 첨부하는 클래식 음악 추천 메일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영화공동체 무명씨네는 '이 달의 단편영화' 구독을 신청하면 이달의 기획전으로 선정된 단편영화를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출판사 마케터인 김태태가 운영하는 '태태의 리뷰레터'는 사회 이슈와 책 리뷰를 엮어 함께 소개하는 메일링 서비스다.

메일링 서비스로 먼저 선보인 뒤 추후 실물 책으로 만들어진 경우도 있다. 임소라 작가의 연작소설집 《언제나 양해를 구하는 양해중 씨의 19가지 그림자》는 지난 4월 8일부터 19주에 걸쳐 매주 월요일 발행된 동명의 소설 시리즈를 엮은 것이다.

수많은 메일링 서비스의 바다에서 나에게 꼭 맞는 메일링 서비스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 #메일링서비스를 검색해 보자. 자신의 콘텐츠를 알리고 싶은 다양한 창작자의 참신한 셀프 광고를 만날 수 있다. 제보받은 다양한 메일링 서비스를 소개해주는 트위터 계정(@mailingservice9)을 참조해도 좋다.

글 한소범 《한국일보》 기자 사진 제공 어피티, 일간 매일마감, 하우위아

민관이 모색한 공예 작가의 판로

신당창작아케이드 x 롯데백화점 유품예술가 초청 전시
〈예술해독제: Detoxicants〉

서울문화재단 신당창작아케이드의 유품예술가 초청 전시 〈예술해독제: Detoxicants〉가 10월 6일부터 31일까지 롯데백화점 강남점에서 진행됐다. 전시는 지난 8월 서울문화재단과 롯데백화점이 체결한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재단은 기획과 운영·홍보를 맡고, 롯데백화점은 장소와 작품 유통을 지원했다. 유통 수수료를 제외한 판매 수익 전액은 작가들에게 전달됐다. 이번 전시는 민관이 협력해 공예 작품이 시민과 만날 기회를 만든 것으로,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예술가에게 힘을 보탠 뜻깊은 자리였다.

신당창작아케이드는 2009년 서울중앙시장 신당지하쇼핑센터 안에 조성된 공예·디자인 전문 창작 공간이다. 매년 공모를 통해 입주작가를 선발하고 있으며, 이들의 작품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는 작가 35팀(37명)과 함께하고 있다.

〈예술해독제: Detoxicants〉는 신당창작아케이드가 입주작가들과 함께한 올해 두 번째 전시다. 총 19팀(19명)이 참여해 기획전 〈KF-94 FACTORY〉와 판매전 〈KF-AD CRAFT〉를 이끌었는데, 1층에 마련된 공간에는 키치팝(도파민 최, 정경우) 팀이 〈KF-94 MACHINE〉을 설치했고, 3층에는 입주작가 18명의 작품 150여 점이 전시됐다.

시민에게는 선물, 작가에게는 판로가 된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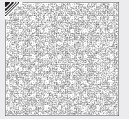
1층 아케이드의 〈KF-94 MACHINE〉은 길이 6m, 높이 3m 규모의 대형 예술품으로, 코로나19로 생기는 부정적 에너지를 수거한 뒤 해독하는 가상의 공장을 표현한 것이다. 작품을 관람한 시민들은 응모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달라진 자신의 일상을 글로 써 작품 옆에 비치된 빨간 우체통에 넣거나, 신당창작아케이드(@sdarcade)와 롯데백화점 강남점(@lotteshopping_gangnam) 인스타그램에 DM을 보내는 것이었다. 추첨을 통해 선발된 응모자 30명은 참여

작가들이 제작한 해독 드로잉을 선물로 받았다.

3층 특별매장에서는 탁자를 비롯한 가구, 소반, 식기, 보석 등이 전시·판매됐다. 퍼니처 분야 김계리·정경우·이준수·김유정·손상우 작가, 액세서리 분야 백시내·조연경·조아라 작가, 테이블웨어 분야 신이서·최채주·구자문·소혜정·장완·김태희 작가, 데커레이션 분야 최은별·



1 한정은 작가의
도예 작품들
2 신이서 작가의
테이블 식기 세트



3 3층 특별매장 전경



한정은·유재연·박민주 작가가 작품을 선보였다. 입소문이 났는지 전시 종료 후에도 작품 구매 문의가 이어졌는데, 특히 신이서·김계리·김유정·한정은 작가에게 많은 관심이 쏠렸다.

아름답게, 오래, 즐겁게 쓰일 공예 작품

도예 작업을 통해 자연물과 인공물, 부드러움과 거침 등 대조되지만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유연하게 연결해 온 신이서 작가는 원과 곡선으로 이루어진 소품(식기)을 선보였다. 상품이지만, 공장 기계가 아닌 예술가의 손끝에서 탄생했기에 예술성과 실용성이 치우침 없이 조화를 이루기도 했다. 특히 오묘한 빛깔과 아름다운 곡선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케이블타이를 주재료로 해 가구와 조명 등을 제작하는 김유정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도 이러한 작업을 이어갔다. 차가운 느낌을 주는 케이블타이지만, 그만의 감성과 표현을 더한 위빙(waving) 기법을 통해 집 안을 환히 비춰주는 따뜻한 소품으로 변

신했다. 예술과 디자인에 경계를 두지 않는 김계리 작가는 철로 된 지지대로 원형의 유리를 받친 가구(탁자)를 선보였다. 평소 자연에서 조형적 영감을 얻는 작가의 작품답게 탁자의 다리를 보면 갈매기의 날갯짓과 출렁이는 파도가 떠오르기도 한다. 신이서 작가와 마찬가지로 도예 작업을 하는 한정은 작가는 특별한 것 없는 일상 속에서 특별함을 찾고, 추상적 관념을 유머러스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게 표현하는 예술가다. 그가 출품한 작품은 집 안을 환하게 비추는 소품으로, 화려한 색감의 꽃과 꽃을 꽃을 수 있는 화병, 사람의 얼굴을 표현한 것 같은 하트 모양의 오브제였다.

3층 판매전은 10월 11일까지만 진행돼 1층 기획전에 비해 기간이 짧았다. 그러나 그 열기만큼은 1층 못지않게 뜨거웠다. 예술성과 실용성 모두를 잡은 작품과 함께, 하루 만에 명이 방문하는 장소이자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모이는 플랫폼에서 전시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글 전주호_서울문화재단 홍보팀 사진 서울문화재단

일상의 시공간을 번역하는 예술가와 재단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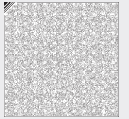
출범 1년 관악문화재단의 지역특성화 사업

관악구는 20~30대 청년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자 젊은 예술인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기도 하다. 1960~70년대의 흔적과 함께, 멀게는 고려 시대의 역사 유산이 남아 있는 이곳에 드디어 지난 2019년 8월 관악문화재단이 출범했다. '지역특성화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많은 첫째, 현대무용가 김설진과 함께 기획한 <스토리 인 관악>은 지역의 일상을 자연스레 담아내며 그다음 행보를 기대하게 했다.

1년 차 자치구 문화재단의 무한도전

관악은 청춘(靑春)이다. 청년 인구 비율 전국 1위, 50만 관악구민 가운데 42%가 20~30대이고, 서울에서 성북구, 마포구에 이어 세 번째로 예술인이 많이 사는 지역이다. 임차료가 저렴해 예술인들이 작업실이나 자취방을 얻기 수월하다. 또 2호선을 타고 강남, 홍대 앞, 성수 어디든 30분 내에 갈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점 덕분이기도 하지만, 어디 그뿐이라. 서울대 인근 대학동에 형성된 고시촌의 뻥뻥한 다세대주택과 상점, 봉천천 주변에 자리한 점성촌의 휘날리는 깃발들, 1960~70년대 이주민들의 애환이 담긴 오래된 가옥 등. 서울 답사가 김시덕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관악구는 '도시화석'이 곳곳에 보물처럼 숨어 있는 곳이다. 게다가 고려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간직한 관악구의 강감찬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예비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며 관악구가 역사문화도시임을 보여준다. 조선의 역사에 익숙한 우리에게 고려 문화는 어쩐지 생경하고 낯설지도 모른다. 하지만 고려부터 현대까지의 낯설고 서로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이런 모습이 오히려 예술인에게는 영감과 매력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이러한 관악구에 2019년 8월, 드디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후발 주자로 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차민태)이 출범했다. 이미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이 설립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

제 막 걸음마를 땀 관악문화재단은 <누구의 딸도 아닌 해원>이라는 영화 제목처럼, 그 누구의 무엇도 아닌, 오로지 관악에서만 가능하고, 관악에서만 상상할 수 있는 무엇, '관악스러움'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차민태 대표이사는 재단 출범 이후 지금까지 매일 재단 직원들과 이 주제로 토론하는 동시에 관악구청(구청장 박준희) 문화체육관광과를 비롯해 구청장, 구의원들까지 부지런히 만나고 소통했다. 정해진 답이 없고 예산도 풍족하지 않지만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은 동일했기에 한마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왔다고 차 대표는 고백한다.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 올해 총 32개 사업, 11억 원 이상의 외부 재원을 유치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는 관악문화재단의 노력도 있지만, 서울문화재단을 비롯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역문화진흥원 등 유관 기관에서 자치구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고민과 애정을 담은 많은 사업을 기획하고 기회를 열어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자치구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으로 시작하는 수많은 공모사업이 이를 보여준다. 사업 방향은 자치구 자원의 고유성과 지역의 연계성을 반영하고, 지역의 고유한 콘텐츠를 발굴하거나 제작하는 것이니 아마도 '○○스러움'을 찾아내려는 고민은 비단 관악문화재단만 하는 것이 아닐 게다.



1



2

지역의 일상을 춤으로 번역하다

관악문화재단은 서울자치구문화재단연합회(회장 김용현, 이하 서문연)에서 주관하는 '2020 자치구문화예술콘텐츠 특성화사업'에 선정돼 현대무용가 김설진과 함께 〈스토리 인 관악〉을 기획했다. 이 사업은 서문연이 지역 문화 진흥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 자치구의 역사문화 콘텐츠와 지역문화 콘텐츠를 결합해 고유한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을 목적으로 한다. '콘텐츠 특성화'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사업 수가 워낙 많다 보니, 재단 담당자들은 새로운 기획서를 쓸 때마다 '특별한' 콘텐츠를 찾느라 진을 뺐다.

김설진과 〈스토리 인 관악〉을 기획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다 김설진과 함께 관악구 일대를 걷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관악구엔 대형마트가 없고 각 동네 재래시장만 있음을 알게 됐다. 그리고 곧 철거를 기다리는, 이끼와 담쟁이로 가득 찬 벽면의 주택들을 만났다. 2020년이라는 시간도, 서울이라는 공간도 실감하기 어려운 풍경이었다.

보편적 시공간이란 무엇일까. '보편'을 정의할 수 없다면 '특별한 것' 역시 정의할 수 없지 않을까. 정해진 답, 즉 정답이 없는 우리 일상을 마주하며 예술가 김설진과 신진 예술가 8명은 관악구에 펼쳐진 저마다의 일상을 그들의 언어인 춤으로 번역해 영상에 차곡차곡 담았다. 그들은 행인과 트럭이 지나다니는 시장 골목 한가운데에서, 재활용품 수집소 앞에서, 점성촌 골목 간판 밑에서 춤을 췄다. 이들의 춤을 담은 2분 남짓한 9편의 영상을 보면 의상도, 몸짓도, 배경이 되는 동네와 행인도 모두 이질적이고 다른 모습이다. 그러나 9개의 각기 다른 춤과 공간은 전통악기 단소를 사용한 하나의 음악을 배경으로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 삶의 시공간이 서로 다르지만 하나로 어우러져 이어진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스토리 인 관악〉영상은 재단 유튜브 채널과 QR코드 전시를 통해 감상할 수 있다.

모든 지역이 저마다의 특별함을 찾는 지금, '지역 특성화' 콘텐츠란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지기 전에 자칫 너무 평범하거나 비루해 주목하지 않던 우리 일상의 풍경을 주목해 보자. 그리고 그것을 예술의 언어로 번역해 주는 예술가들을 만나보자. 그들의 언어가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우리 일상을 특별하게 바꾸어줄 것이다. 그것이 예술의 힘이고, 그것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지역 재단이 해야 할 진정한 역할이 아닐까.

글 양지원 관악문화재단 기획조정팀장 사진 제공 관악문화재단

1 2020 자치구
문화예술콘텐츠
특성화사업
〈스토리 인 관악〉
촬영 현장(연출 김설진)
2 관악구 삼성동
전통시장 입구.
현대무용가
정시연(Waackxxxxy)

고가 아래, 동네 분위기를 바꾸다

다락옥수

지하철과 수많은 차가 지나다니는 한강 다리 아래, 굵은 콘크리트 기둥 사이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공간이 있다. '다리 밑의 즐거움'이라는 이름처럼, 삭막한 고가 하부를 주민들에게 활력과 재미를 선사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한 '다락(樂)옥수'를 찾아가 보았다.



1 어린이들과 함께 진행한 '문화, 걸로 오樂다樂'의 키즈매직클래스 수업 광경

2 실내에 마련된 키즈존

3 다락옥수 전경. 옥수역 7번 출구로 내려오면 바로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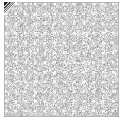
다시 태어난 고가 하부

다락옥수는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과 성동구의 고가 하부 공간 활용 시범 사업으로 조성돼 2018년 4월 개관했다. 운영은 성동문화재단에서 맡고 있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도심 속에 방치돼 있던 그늘지고 어두침침한 고가 하부 공간을 생활SOC로 조성하고 있다. 1호점 다락옥수에 이은 2호점은 이문 고가 하부의 주민 커뮤니티 공간 '루프 스퀘어(Roof Square)'로 2020년 6월 완성됐다. 3호점은 성북구 종암사거리 고가 하부, 4호점은 한남1고가 하부에 조성 중이며, 앞으로 금천과 중랑천 고가 하부까지 총 6곳이 이 사업을 통해 변신한다.

"다락옥수가 생기고 나서 주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고가 아래 광장에는 간단한 운동기구밖에 없었거든요. 옥수동에는 문화 공간도 없었고요. 역 근처에 술집과 포장마차가 몰려 있다 보니 고가 아래는 고성방가에 노상 방뇨하는 곳이었죠." 공간을 총괄하고 있는 김균희 성동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의 얘기다.

지하철역에서 매우 가깝다는 것은 다락옥수의 최대 장점이다. 동호대교 북단의 옥수역에서 7번 출구로 내려오면 다락옥수가 바로 보인다. 옥수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오가며 들르기에 좋은 위치다. 실내 면적은 약 200㎡(60평)로 1개 층에 북카페, 키즈존, 강의와 커뮤니티 공간, 작은 실내 정원 등이 옹기종기 자리 잡고 있다. 김균희 팀장은 "정식 도서관은 아니지만 누구나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도서관 같은 느낌을 내고 싶었다"고 전했다. 북카페의 도서는 개관 당시 구입한 책과 기증받은 성인도서 및 아동도서 중심으로 구비돼 있다. 책을 기부한 주민에 한해 한 달에 최대 2권까지 대출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전 다락옥수는 하루 평균 200여 명이 드나들며 항상 사람들로 북적였다. 주민들은 노트북을 가져와 일을 하거나, 누군가를 기다리며 책을 보거나, 그냥 들어와서 앉아 있기도 했다. 동네 아이들은 학원 가기 전 남는 시간에 들러 키즈존에서 신발 벗고 집처럼 편하게 쉬다가 갔다. 오후 9시까지 열려 있다 보니 퇴근길에 잠시 들르는 직장인도 많았다. 다락옥수 뒤편의 옥수광장에서는 문화행사가 자주 열렸다. 방치돼 있다시피 하던 광장이 다락옥수가 생기면서 활기를 띠게 됐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인근 옥수사회복지관과 함께한 나눔장터, '성동구립 꿈의 오케스트라' 공연, 옥수 문화광장 축제, 옥수역 고가 아래 공공예술 프로젝트 '플레이폴(Playful)'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야외 공연이 열릴 때면 다락옥수의 기울어진 지붕에 설치된 나무 계단은 객석 구실을 했다.



3

앞으로도 편하게 머물 수 있기를

여느 공공 문화시설과 마찬가지로 다락옥수도 올해 2월부터는 제대로 문을 연 날이 많지 않다. 지난 8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실시로 다시 한동안 닫았다가 10월 15일 재개관했다. 재개관을 앞두고는 전체적인 자리 배치에 변화를 주었다. 테이블 수를 줄이고 한 테이블에 1명만 앉도록 의자도 뺐다. 프로그램 운영 시에도 최대한 간격을 두고 앉는다. 원래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열었는데, 재개관 후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만 운영한다. 여느 시간은 오전 9시로 동일하지만 닫는 시간은 아쉽게도 오후 9시에서 6시로 당겨졌다.

중단됐던 정규 문화강좌 '문화, 곁으로 오樂다樂'도 이어진다. 먼저 서양 매듭 '마크라메' 강좌가 10월 20일 재개돼 12월 1일까지 진행된다. 정규 문화강좌는 성인과 어린이 대상으로 1개월에 2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운영을 맡고 있는 성동문화재단의 배인문 팀원은 "수강료와 재료비가 무료이고 선착순으로 10명 이내의 인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금방 마감된다"고

전했다. 정규 문화강좌 외에도 서울문화재단의 자치구 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문체부의 무지개다리 사업 등의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을 대관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주민 간담회, 생활문화동아리 모임, 워크숍 등 성동문화재단과 성동구의 크고 작은 행사와 모임 공간으로 활용된다. 옥수동 주민 정은선님은 2019년 4월부터 다락옥수에서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다. "집 앞이기도 하고 이용해 보니 너무 좋아서 채용 공고 보고 지원했어요. 동네 주민들은 여기를 거의 다 알고 있죠. 자주 오시는 분들과도 친하게 지내요." 이렇게 지역 주민의 사랑을 받는 다락옥수지만 코로나19 이후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3분의 1로 줄었다. 배인문 팀원은 문을 닫고 있는 동안 언제 다시 여는지 묻는 전화가 많이 왔다고 전한다. 문 열기를 기다린 사람들이 있음은 그만큼 편하고 좋은 공간이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동시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줄었어도 공간이 주는 느낌은 그대로이기를 바라본다.

글 전민정_객원 편집위원 사진 제공 다락옥수

무대로 간 고전 로맨스, 색다른 연출로 재탄생하다

연극 <오만과 편견>과 뮤지컬 <고스트>

고전 로맨스 소설과 영화를 원작으로 한 공연이 나란히 관객을 맞고 있다. 무대에 오른 작품은 연극 <오만과 편견>과 뮤지컬 <고스트>다. 전자는 영국 작가 제인 오스틴이 1813년 펴낸 동명 소설, 후자는 패트릭 스웨이지와 데미 무어 주연의 영화 <사랑과 영혼>이 원작이다. 두 작품은 익숙한 고전 명작을 뻔하지 않게 연출해 무대예술만의 매력을 보여준다. 원작의 재탄생이라고 불려도 좋을 만큼 새롭다.

※해당 공연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고전의 향기, 2인극으로 되살아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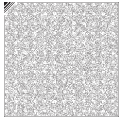
<오만과 편견> | 9. 19~11. 29 | 예스24스테이지 3관

<오만과 편견>은 드라마와 영화로 여러 차례 만들어졌다. 국내에서는 콜린 퍼스가 주연한 BBC 드라마(1995)와 키이라 나이틀리가 여주인공을 맡은 영화(2006)가 사랑받았다. 연극은 원작을 2인극으로 각색한 작품이다. 원작 소설 출간 200주년을 기념해 2014년 영국 솔즈베리 극장에서 초연한 버전이다. 초연 당시 “원작보다 더 재밌는 각색 버전”이라는 평을 받았다. 호평의 힘은 애비게일 앤더슨의 참신한 연출에 있다.

작품의 줄거리는 원작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 19세기 영국 중류층 베넷가(家)의 총명한 둘째 딸 리지와 무뚝뚝한 명문가 신사 다아시가 우여곡절을 딛고 결혼에 이르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린다. 두 주인공을 둘러싸고



2인극으로 각색된 연극 <오만과 편견>의 배우 백은혜(왼쪽)와 이형훈(오른쪽)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무대에서는 배우 2명이 등퇴장 한 번 없이 21개 배역을 모두 연기한다. 캐릭터에 따라 부채·안경·지팡이·모자·손수건 등 소품을 달리고, 말투와 목소리에 변화를 줄 뿐이지만 각각의 캐릭터가 뚜렷하게 구분된다.

이를테면 다아시가 코트를 여미면 베넷가의 수줍은 첫째 딸 제인이 된다. 파이프 담배를 물면 진중한 아버지로 바뀌었다가 모자를 눌러쓰면 베넷가 상속자인 콜린스 목사로 변신하는 식이다. 리지 역시 치맛자락을 찢히면 다아시의 친구 빙리가 되지만 흰 손수건을 손에 드는 순간 베넷가의 수다스러운 어머니로 변한다. 자연스럽게 젠더 프리(Gender-Free·성별에 관계없이 배역을 정함) 캐스팅의 묘미를 만끽할 수 있다. 계급사회의 위선을 꼬집는 원작 특유의 문제의식과 단순한 무대 세트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점도 돋보인다. 연극 〈럼스〉,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 계셔〉의 박소영이 연출했다. 방대한 양의 대사를 소화하면서 순간순간 여러 역할을 능수능란하게 오가는 배우들의 호연을 보고 있노라면 160분이 금세 지나간다. 2019년 초연 멤버 김지현·정운선·이동하·이형훈에 백은혜·홍우진·신성민이 새로 합류했다. 연극·드라마와 비교 감상하거나 캐스트를 달리해 보면 흥미로울 듯하다.

불멸의 사랑, 최첨단 무대에 담다

〈고스트〉 | 10. 6~2021. 3. 14 | 디큐브아트센터

1990년 국내에서 개봉한 영화 〈사랑과 영혼〉은 고전의 반열에 오른 작품이다. 원작의 인기를 바탕으로 2011년 영국 맨체스터에서 초연한 뮤지컬 〈고스트〉도 성공했다. 같은 해 런던 웨스트엔드 피카델리 극장에 입성한 데 이어 이듬해 뉴욕 브로드웨이에 진출했다. 현지에서 “연극무대와 최첨단 기술의 놀라운 결혼”이라고 호평받았다. 국내 공연은 2013년 초연 이후 7년 만이다. 익히 알려진 샘 위트와 몰리 젠슨의 가슴 절절한 사랑 이야기를 어떻게 무대에 구현했을까가 관람 포인트다.

최첨단 무대가 단연 돋보인다. 무대 위 구조물 샘과 몰리의 집은 7천 개의 LED판으로 이뤄졌다. LED 조명이 켜지면 영상 판으로, 꺼지면 세트로 활용한다. 무대를 가득 수놓는 영상은 시각적인 즐거움을 준다. 세트는 내용 전개에 따라 샘의 직장, 지하철, 병원, 칼의 사무실 등으로 바뀐다. 이때 세트 사이로 비치는 LED 조명이 신비로운 느낌을 준다.

극 중 유령인 샘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활용한 조명과 마술은 보기만 해도 신기하다. 오토 폴로(Auto Follow·무빙 조명이 배우 몸에 부착한 센서를 인식해 자동 추적하는 프로그램) 기법을 써서 샘이 움직일 때면 줄곧



뮤지컬 〈고스트〉의 몰리(아이비·오른쪽)와 샘(주원·왼쪽)

푸른색 조명이 따라다닌다. 푸른색 조명은 샘의 애달픈 감정을 증폭시킨다. 일루서니스트 폴 키이브가 개발한 마술은 고스트를 매지컬(Magical·매직과 뮤지컬의 합성어)로 바꿔놓았다. 살해당한 샘이 영혼이 빠져나간 육신을 슬프게 바라보는 장면, 샘이 문을 통과하는 장면, 지하철에서 또 다른 유령과 싸우는 장면이 압권이다.

첨단 기술의 향연 속에서 원작의 드라마는 탄탄하게 그대로 전개된다. 특히 몰리가 생전 샘에게 쓴 편지를 읽은 후 편지가 저절로 접히는 장면이 뇌리에 박힌다. 이 장면에서 몰리는 샘의 영혼을 처음 인정한다. “몰리 사랑해. 항상 널 사랑했어.” 구전을 떠돌던 샘이 이 말을 전하고 홀가분한 표정으로 이승을 떠날 때쯤, 관객의 눈가에도 슬며시 이슬이 맺혔다. 샘은 주원과 김우형·김진옥, 몰리는 아이비와 박지연이 번갈아 맡는다. 오다 메 브라운을 연기하는 베테랑 박준면과 최정원의 ‘이 한 몸 불사르는 연기’만으로도 불만만 가치가 있다.

글 문수경_《CBS노컷뉴스》기자 사진 제공 달컴퍼니, 신시컴퍼니

극과 극 아날로그 회화와 디지털 아트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

전시 <변시지, 시대의 빛과 바람>과 <TeamLab: LIFE>

햇살, 바람, 나무, 바다... 두 전시엔 우리 곁의 친근한 자연 요소가 모두 들어가 있다. 그러나 두 전시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변시지, 시대의 빛과 바람>은 회화 전시이고, <TeamLab: LIFE>는 첨단 테크놀로지로 구현한 몰입형 디지털 아트다. 자연을 바라보고 표현하는 시각도, 관람객과 소통하는 방식도 크게 다르다. '나홀로' 작가와 다수의 전문가가 '팀'으로 작업한 과정도 대비된다. 예술을 예술이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전시를 찾는가. 두 전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전혀 다른 언어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

※ 해당 전시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변시지 <폭풍의 바다>, Oil on canvas, 91×117cm, 1989

‘폭풍의 화가’ 변시지를 재조명하다

<변시지, 시대의 빛과 바람> | 10. 16~11. 15 | 가나아트센터

“1980년대의 어느 해, 변시지 선생의 그림을 처음 대했을 때 전해오던 감흥을 오래 기억하고 있다. 그의 그림은 다소 원초적이고 설화적이었다. 그것은 존재의 소솔함과 삶의 외경에 대한 깊은 통찰력처럼 보였고, 그것을 드러내는 저돌성에 그 특징이 있어 보였다.” 《변시지: 폭풍의 화가》(열화당)를 쓴 서종택 고려대 명예교수가 책의 서문에 쓴 글이다. 서 교수는 대학에서 현대문학을 가르쳤는데 변시지 작품에 매료돼 20년 전 변시지 작가에 대한 책까지 냈다.

한국 미술계에서 변시지(1926~2013) 작가가 차지하는 자리는 매우 독특하다. 작가 생전에도 그의 그림을 보고 감전된 듯 감동한 열렬한 애호가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선 아직 그의 이름조차 모르는 이들도 적잖다. 제주도에서 작업하던 작가는 2013년 세상을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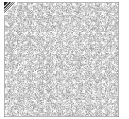
최근 미술계에서 변시지 작가를 조명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난 5월 변시지의 전 생애 작품을 다룬 화집 《바람의 길, 변시지》(누보)가 출간된 데 이어 이번엔 그의 주요 작품을 선보이는 기획전이 서울에서 개막했다. 바로

이 전시다. 이 전시는 작가가 1975년 제주로 귀향해 2013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38년간 제주에 머물던 시절 완성한 주요 작품 40여 점을 선보인다.

변시지는 제주도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 일본으로 이주해 자랐고, 20대 초반에 일본 중앙 화단에서 화려하게 주목받으며 데뷔했다. 30대에 서울대 교수로 초빙돼 귀국하지만 한국 화단에 적응하지 못한 그의 삶은 순탄치 않았다. 교사와 강사 생활을 전전하다가 제주도로 간 이유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 넘게 자신에게 익숙하던 모든 색과 기법도 다 버리고, 서양화와 동양의 문인화 기법을 융합한 자신만의 독창적 화풍을 만들어나간다.

화면 전체를 황토빛 노란색으로 채운 그의 그림엔 항상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파도는 섬을 삼킬 듯이 성난 있고, 그 섬엔 바람에 날아갈 듯한 초가 한 채와 소년 혹은 지팡이를 짚은 노인과 조랑말, 까마귀 등이 반복해 등장한다. 마치 동양 문인화에서 먹을 쓰듯이 검은 선으로 대상을 표현한 것도 특징이다.

변시지의 화폭에 담긴 풍경은 호젓하다 못해 쓸쓸하다. 그리고 격랑 한가운데서 끊임없이 흔들리되 뒤집히지 않고 어딘가를 향해 가는 한 척의 배처럼 곳곳한 기상도 담겨 있다. 우리는 그의 그림에서 우리 마음의 풍경을 본다.



〈TeamLab: LIFE〉 전시장 모습

미디어아트, 미술의 길을 묻다

〈TeamLab: LIFE〉 | 9. 25~2021. 4. 4 |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벚꽃이 만발할 때, 혹은 단풍이 한창일 때 공원으로 산으로 나들이를 가는 것도 앞으로 옛날 얘기가 될지 모르겠다. 이제 미술관은 벽에 그림 한 점 걸지 않고도 관람객을 끌어모으고, 첨단 기술로 잘 빚어낸 ‘빛’으로 자연보다 더 실감 나는 영상으로 관람객의 탄성을 자아낸다.

“예뻐야 돼, 뭐든 예쁜 게 좋아.” 박찬욱 감독의 영화 〈친절한 금자씨〉(2005)에서 금자 씨가 한 말이다. 좀 과장하자면 미술 창작 그룹 팀랩(TeamLab)이 선보이는 이 전시는 철저하게 금자 씨의 이 주문을 따랐다. 제주도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킨 미디어아트 〈빛의 벙커〉와 최근 출범한 아르떼 뮤지엄 같은 종류의 몰입형 미디어아트다. 다만 꽃과 바다 등 자연에 집중한 소재로 환상적인 공간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확연히 차별된다.

전시는 약 1,256m²(약 380평)에 마련된 8개의 어두운 전시장에서 다양한 작품을 체험하는 방식이다. 각 방의 벽과 바닥, 천장엔 꽃이나 동물, 나비, 파도 등이 나올거린다. 여기서 팀랩은 자연을 재현하되 현실에서 육안으로 생생하게 포착하지 못한 순간을 압도적인 스케일과 디테일로 펼쳐낸다.

나팔꽃은 어둠 속에서 부유하는 형태로 여기저기서 천천히 피어나고, 해바라기는 단숨에 ‘일생’을 보여주려는 듯 자라난 뒤 활짝 꽃을 피우고 눈부시게 노란 잎을 눈송이처럼 떨군다. 벽면의 꽃잎에 손을 대면 꽃은 시들어버리고, 폭포의 물줄기 가운데 서 있으면 물살은 사람의 어깨 위로 튕겨 흐른다. 디지털 영상이 관객의 모션을 감지해 실시간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팀랩은 아티스트,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CG애니메이터, 건축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창작 그룹이다. 이들의 전시는 도쿄를 비롯해 뉴욕·런던·파리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 벌써 관람객 2800만 명을 끌어모았다. 자연·생명에 방점을 찍고, 디지털 영상에 현실과 다른 시간성을 부여해 아름다움을 극대화해 보여주는 데 주력한 성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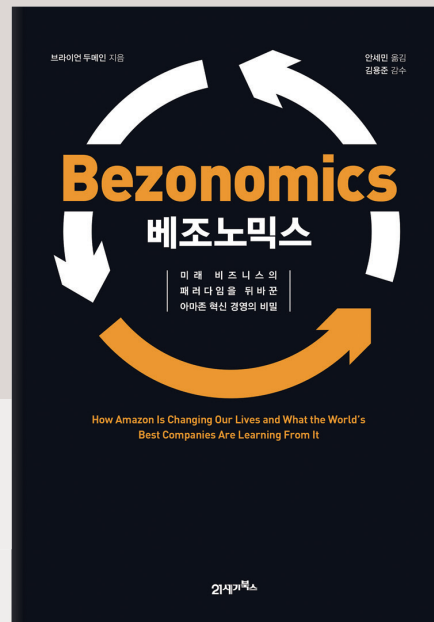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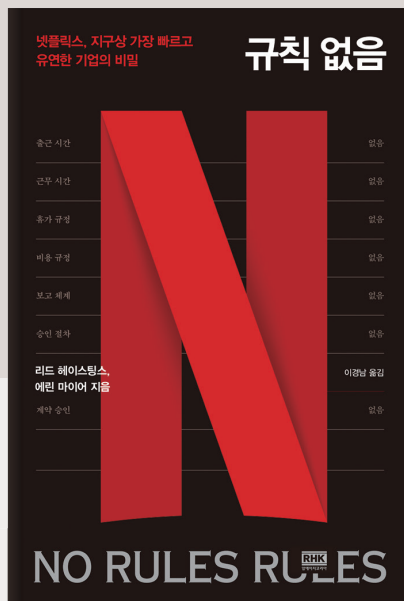
그러나 이 전시를 봐야 이유는 이것이 최상의 미디어아트여서가 아니다. 미디어아트의 현재를 가늠하고, 그 미래를 질문하게 하는 현장이라서다. 이것은 아트인가, 새로운 테마파크인가. 그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재미와 감동의 가치는 어떻게 다른가. 〈TeamLab: LIFE〉가 우리에게 질문한다.

글 이은주_〈중앙일보〉기자 사진 제공 가나아트, 문화창고

넷플릭스와 아마존은 왜 잘나갈까

책 《규칙 없음》과 《베조노믹스》

코로나19로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모두가 힘든 건 아니다. 오히려 위기의 시대에 승승장구하는 기업도 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미국 기업 넷플릭스와 아마존이 대표적이다. 넷플릭스는 ‘집콕’ 시대를 맞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세계 각국에서 유료 시청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아마존은 비대면 쇼핑 수요 급증에 힘입어 물류 시스템을 확장하기까지 했다. 두 회사 모두 올 들어 크게 성장했고 주가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그런데 과연 이들은 우연히 시대를 잘 만난 덕에 잘나가는 것일까. 책 《규칙 없음》과 《베조노믹스》에는 이들의 남다른 성공 비결이 담겨 있다.





‘이래라저래라’가 없는 회사

《규칙 없음》 | 리드 헤이스팅스·에린 마이어 지음 | 이경남 옮김

알에이치코리아

넷플릭스에는 휴가 규정이 없다. 어떤 직원은 두 달 동안 휴가를 내서 아마존 탐사를 떠나고, 또 누군가는 매달 마지막 주일을 통째로 가족과 지내는 시간으로 사용한다. 출퇴근 시간 역시 마찬가지다. 재택근무는 물론이고, 주중 3일만 일할 수도 있다. 직원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한다.

넷플릭스에는 출장이나 접대 비용 규정도 없다. 이 역시 판단과 결정은 직원의 몫이다. 판단의 유일한 기준은 ‘회사에 이득이 되는가’다. 예를 들어 회사 중역이 아니라 실무 직원일지라도 밤 비행기로 장거리 이동을 한 후 다음 날 아침 중요한 발표를 해야 한다면 이코노미석보다는 비즈니스석, 비즈니스석이 없다면 1등석을 이용하는 게 현명한 판단일 수 있다. 피곤함에 짓눌려 흐릿한 상태로 중요한 업무를 다뤘다가는 오히려 회사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심지어 넷플릭스에는 보고 체계나 승인 절차도 없다. 수백만 달러 규모의 계약도 실무자에게 맡긴다. 정보에 가장 밝은 사람, 즉 그 일을 담당하는 직원이 CEO보다 성공 여부를 더 잘 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넷플릭스는 ‘이래라저래라’가 없는 ‘꿈의 직장’ 그 자체다. 하지만 다소 무서운 성공 비결이 더 있다. 자율만큼 무거운 책임의 무게다. 자율을 택하는 대신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두 달간 아마존 탐사를 떠나려면 회사가 인정할 만큼의 성과를 먼저 내야 한다. 자리를 비우더라도 다른 직원에게 업무 피해가 가선 안 된다.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을 확실할 만큼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회사 문화가 매우 솔직하다. 서로에 대한 평가가 과감하다. 상향 평가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분위기가 가능하도록 넷플릭스는 애초에 ‘유능한’ 사람들을 골라 채용한다. 경쟁사에 비해 직원 연봉을 더 높게 책정해 인재를 모은다. 대신 적당히 일하는 사람은 재빨리 내보낸다. 조직 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퇴직금을 두둑하게 쥐 서둘러 내보낸다. 달콤한 듯하지만 한국 사회 기준에선 일면 살벌하기도 한 조직 분위기가 넷플릭스를 오늘날 성공으로 이끌고 있다.

그냥 해외 직구 사이트? 아닙니다!

《베조노믹스》 | 브라이언 두메인 지음 | 안세민 옮김 | 21세기북스

아마존 앞에 흔히 붙는 수식어는 ‘글로벌 유통 공룡’이다. 아마존은 20세기 말 인터넷에서 책을 판매하는 서점으로 시작해 거대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로 성장했다. 우스갯소리로 ‘없는 것 빼고는 다 파는’ 세계 최대 인터넷 쇼핑몰이 됐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다. 아마존은 IT, 유통을 넘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물류, 환경, 헬스케어, 금융 등 끊임없이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도무지 어떠어떠한 기업이라고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다. 언젠가는 우주가 아마존의 사업 본거지가 될지도 모른다. 이미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Jeff Bezos)는 우주 사업 진출을 선언한 상태다.

이처럼 무섭게 승승장구하는 아마존의 성공 비결은 도대체 뭘까. 책은 CEO 베조스의 경영 철학에 주목한다. 그는 지나칠 정도로 고객 중심주의다. 고객에게 최고의 기업이 되기 위해 직원들을 힘들게 한다는 악평도 받지만 “회사는 제품 안내서를 읽으려고 하지 않는 고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과정에서 아마존의 성공 경영 상징이 된 ‘six pager’(six pager)가 탄생하기도 했다.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나 제품이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직원들은 사업 기획 초기부터 텍스트로 된 6장짜리 보고서를 꼼꼼하게 만들어야 한다. 베조스는 요즘 유행하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은 눈속임이라고 생각한다.

또 책은 “대부분의 CEO가 다음 분기 혹은 그다음 분기를 고민할 때 베조스는 6년, 7년 뒤에 얻을 결과에 대해 생각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아마존 경영의 또 다른 상징인 ‘플라이휠(fly wheel)’이 등장한다. 플라이휠은 일종의 상상 속 바퀴인데 처음엔 돌리는 게 힘들지만 가속도가 붙으면 엄청난 속도로 돌게 된다. 다시 말해 처음엔 멀리 내다보고 상상하는 일이 어렵지만 자주 생각하다 보면 익숙해진다. 그 결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이 아마존에는 더 이른 시기에 유입돼 여러 방면에 적용됐고, 고속 성장의 동력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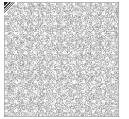
글 정영현_《서울경제》기자 사진 제공 알에이치코리아, 21세기북스

1990년대의 시작, 수유동 530번지의 시간



수유동 530-1번지에 지어진 현대빌라

차를 타고 미아리고개를 넘어 그리 가파르지 않은 비탈길을 내려가다 보면 곧장 가거나 오른쪽으로 돌라는 표시의 차선을 보게 된다. 나는 오래도록 오른쪽으로 돌아 정거장에 멈춰 승객을 내리고 태운 뒤 다시 곧장, 혹은 왼쪽으로, 그리고 몇 미터 못 가 곧장, 또는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는 신호등의 빛을 보았다. 길음사거리라고 불러야 하나? 오른쪽 모퉁이에 역사 깊은 미아리텍사스가 퇴락해 가는 모습 그대로인 곳으로부터 곧장 올라가게 된 길, 삼양로라고 하는 길은 우이동 종점까지 거의 굴곡을 이루며 일직선으로 뻗어 있다. 한참이나 곧장 가게 된 길엔 물론 중간중간에 오른쪽, 왼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다. 삼양동과 미아동 등등. 골짜기와 산 사이를 지나고 너른 곳이나 야트막한 산기슭에 집들이 지어지고 마을이 생기던 세월이, 이를테면 서울의 성장과 팽창이란 도시화의 모습이다. 무수한 슬픔과 고통과 희망과 절망을 살아낸 가난한 사람들의 시간. 또한 토지 소유자나 개발업자들의 치부(致富)도 함께였다. 그런 개발의 시간에 산이 깎이고 개울이 덮여 숲이 사라지고 개울물이 말랐다. 산과 골, 그런 곳을 집으로 삼아 살아가던 무수한 생명의 터전을 사람들이 ‘개발’한 땅. 개발의 시간을 지나 재개발된 곳. 나는 이런 곳에서 ‘인간 중심 개발’이 살해한 생명의 시간과 공간을 느낀다. 아득한 옛날엔 사람들이 다니지 않았을 것이지만 궁궐의 빨래를 했다는 ‘빨래골’엔 너른 바위가 있고 물이 흐른다. 궁궐의 빨래를 하려면 움직이는 사람이 많았을 터. 빨래골에 갈 때마다 너른 바위가 빨래판같이 보이고 물줄기가 시원하고 물이 많은 곳에 서서 궁인들의 갇힌 삶을 상상하곤 한다. 그런 신분 사회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스럽다. 사



람 사는 세상이라 여전히 다양한 모순과 갈등이 풀죽처럼 끓지만 적어도 그런 것을 유교 가부장 이념으로 눌러서 미덕으로 치장하는 때는 아니니까, 언뜻 복 받은 느낌이다! 이곳에서 한두 개의 산을 넘으면 화계사가 있다. 조선 중종(1522년) 때 창건된 절이다. 화계사 길을 지나면 가오리(加五里). 가오리를 지나면 장미원이다. 장미원 다음은 4.19사거리. 왼쪽으로 돌면 국립4.19민주묘지. 그 위쪽 끝까지 올라가면 아카데미하우스가 있다. 나는 버스를 타고 이곳을 지나가며, 나로선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농민(離農民)이 도시빈민(都市貧民)이 돼 살아가는 삶의 고단함과 절박함을 느끼곤 한다. 빈민은 좌절도 하지만 그 밑바닥의 생명력은 절박해서 힘차기도 하다.

내가 주로 타고 다니던 버스는 지금의 104번으로 번호가 바뀐 127번이었다. 127번은 국립4.19민주묘지를 지나고 나서 종점에 이르렀다. 지루한 길을 거의 직선으로 달려와 4.19사거리에서 왼쪽으로 돌아 종점으로 오는 건데 여기서 내리면 집이 가까웠다. 하지만 나는 대개 이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우이동에 종점을 둔 지금의 109번인 8번 버스를 즐겨 탔다. 시내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 장미원 정류장에서 내려 신호등 앞에 섰다가 넓지 않은 길을 건너면 장미원 시장으로 들어서게 된다. 시장에서 누군지는 몰라도 서로 얼굴이 익은 사람들이 꾸러가는 생선 가게, 채소 가게, 정육점, 빵 가게와 떡집, 순대 가게와 건어물집, 기름집 등등에서 이것저것 사면 손가락이 모자라게 비닐봉지를 무겁게 들고 뺄뺄뺄 이어진 골목길을 걸어 집으로 간다. 자그마한 가게가 수도 없이 업종이 바뀌고 간판이 달라지는 것을 지켜보고, 그러나 바뀌지 않는 공중목욕탕을 지나 달걀과 쌀을 파는 가게를 둘러 건다 보면 아주 커다란 공터가 나왔다. 야트막한 언덕길. 넓고 넓은 공터. 골프 연습장이었다는데 비어 있었다. 골프라면 사진으로만 보았고 흥미를 느끼지 못하니 별 느낌이 없었다. 그러나 그곳은 나이와 상관없이 여자의 몸을 한 사람들은 지나다니기 위험한 곳이었다. 어두워지면 더 그랬다. 기억하기도 싫은 험한 일을 남자사람으로부터 당하고도 말하지 못했다. 이런 공포와 관련한 ‘피해자’라는 이름은 요즘에야 언급되는 것. 수십 년 전엔 불치병처럼 감추고 감춰야 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 공터가 노태우 정권 시절 집이 부족하고 해서 갑자기 평수 좁은 다세대주택 단지로 바뀌었다. 어쨌든 공포의 골프 연습장이 사라져 밤에도 맘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됐다.

1980년대 중반, 수유동 530-1번지에 현대건설에서 석재를 소비하기 위해(그랬다는 설이 있는) 단단한 우리나라 썩돌을 벽에 붙인 빌라를 지었다. 그 당시엔 강남의 올림픽션수촌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높았다. 넓은 단지에 3층으로 지은 빌라는 4개 동으로 나뉘어 있었고 전부 66가구가 입주해 살았다. 이 빌라 단지 위로는 그냥 숲과 산이었다. 넓은 숲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다. 생김 대로 있는 숲은, 긴장과 억압을 씻어주는 ‘위로’의 터였다.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은 그곳에서 다양한 풀과 꽃과 곤충을 만났고, 어른들은 좁은 산길을 오르내리며 피로를 풀고 새 힘을 얻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다. 살고 있는 집으로 돈을 번다는 생각을 못 하거나 그런 것은 옳지 않다고 여기는, 자본주의 탐욕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남아 있다.

나는 가끔 아직도 현대빌라에 남아 있는 친구를 만나러 그곳에 간다. 살고 있는 집으로 돈을 버는 미친바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썩더미로 만드는 때, 그 바람의 끝자락에도 서지 못하는 사람들의 열패감, 혹은 자부심.

문득, 정치란 옳은 것을 지켜내는 ‘힘’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스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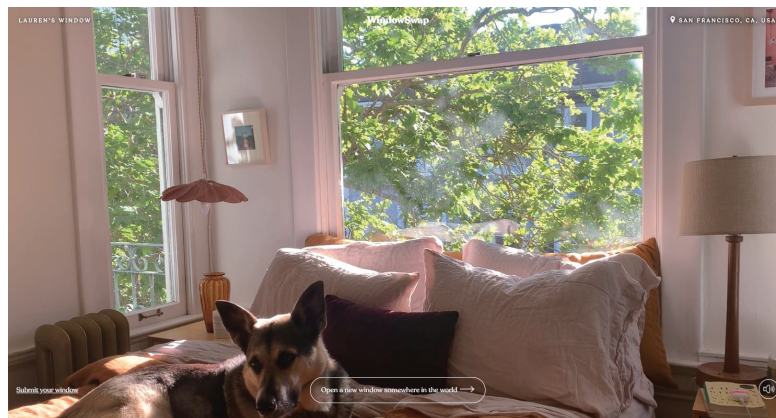
글·사진 이경자·서울문화재단 이사장, 소설가

가질 수 없지만 연결돼 있고 싶어

온라인 '창문 채널'로부터 받는 어떤 위안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까지 격상되자 강제로 집에 봉인될 수밖에 없게 된 대다수의 시민은 좁은 집 안에서 제 나름의 탈출구를 찾아야 했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레크리에이션 강사가 돼 각종 놀이를 개발했고, 작은 집에 홀로 사는 나의 경우 유튜브에서 외국 유학생들의 브이로그를 틀어놓거나 과거 여행 갔을 때 들었던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추가된 또 하나의 취미, 바로 남의 집 창문 풍경을 찾아보는 것이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로런의 집 창문(www.window-swap.com/window 갈무리)

지금 당신의 집 창밖으로 무엇이 보이나요? 저는 인도의 노이다에 위치한 어느 저택의 창문 밖 풍경을 보고 있습니다. 창문이라기보다는 정원과 집을 분리하는 파티오도어에 더 가깝겠네요. 중간 문을 활짝 여니 푸른 잔디와 벽을 타고 자란 담쟁이와 그 뒤로 울창하게 뻗은 수목이 펼쳐져 있습니다. 마침 비도 내리고 있어서 차분한 빗소리와 먹구름이 몰려오는 소리가 섞여 더할 나위 없이 운치가 좋네요. 1960년대 미국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목재로 만든 덧문은 우아한 디자인이고,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언뜻 보이는 커튼이 기분 좋게 찰랑거립니다. 계속 내리는 비 덕분에 정원수와 잔디가 시원하게 물을 머금어 여름이 더 짙어지고 있고요.

답답한 코로나 시대에 해외여행 중인 걸 자랑하냐고요? 아니요, 사실 제가 보고 있는 창문은 저희 집 창문이 아닙니다. 남의 집 창문을 모니터에 띄워놓고 저는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window-swap'라는 사이트에 접속하면 24시간 이렇게 예쁜 남의 집 창밖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제 집은 창을 열어 건물 앞뒤에 들어선 빌라의 외벽으로 꼭 막혀 조막만 한 하늘도 볼 수 없지만, 고도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이렇게 남의 집 창문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인도 창문이 지겨워서 다음 페이지로 가는 버튼을 누르니 포르투갈 리스본의 창밖이 나오네요. 리스본의 창밖은 한밤중이고 천둥이 치고 있어요. 스피커를 켜니 태풍이 몰려오는 음산한 소리



도 들립니다. 이 창문은 맘에 안 들어서 다음 창문으로 넘겨야겠습니다. 어머니,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어느 집에는 창문을 배경으로 개가 늘어져 있습니다. 커다란 통창에 면해 침대가 놓여 있고 세퍼트종으로 보이는 큰 개가 침대에 누워 하품을 하고 있습니다. 클릭해서 보니 이 창문은 ‘로런’의 집이라고 하네요. 창문 너머로 가로수 그늘이 드리워져 햇빛과 초록색이 어우러진 집에 사는 로런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 로런의 개가 고개를 파묻고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밖 풍경, 조망권을 가질 능력

비록 서울의 나는 밤 10시에 원고를 쓰고 있지만, 모니터 속 샌프란시스코는 대낮이고 이름을 알 수 없는 큰 개가 침대에 누워 있다. 녹화 영상인데도 같은 시간에 로런과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기분이 든다. 이 창문 채널에서는 ‘Open a new window somewhere in the world’라고 적힌 화살표를 클릭하면 전 세계의 다양한 창문과 그 공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다른 모니터에 홈페이지를 접속해 놓고 중간중간 그쪽을 들여다봤다. 백색소음 역할을 해서 일할 때 집중도 잘됐다. 창밖 정원 잔디에 사슴이 스무 마리 정도 돌아다니는 풍경도 있었는데 모니터 위에 표기된 집 주인의 이름은 ‘레이첼’이었다. 미국에 사는 레이첼 씨는 도대체 어떤 집에 살고 있기에 멸종한 정원에 사슴 가족이 돌아다니는 것일까. 일하다 말고 멍하니 남의 집 창밖을 보다가 상상력을 한껏 펼쳐보기도 한다.

이 창문 사이트는 싱가포르의 소날리 부부가 만들었는데, 이들은 멋진 집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우리 집 창문 밖 풍경이 마음에 안 든다’며 올린 사진을 보고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한다. 이 사람이 올린 그 집 창문 밖 풍경 사진은 소날리 부부가 보기에 충분히 아름다웠는데도 매일 보다 보니 막상 집주인은 무감해진 것이다.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 속에 살아도 매일 보면 질리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낯선 풍경을 찾아 여행을 다닌다. 여행을 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이 부부는 전 세계 사람들의 창문 밖 영상을 공유해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다.

불과 1년 전까지도 이런 이국적 풍경을 보면 ‘가보고 싶다’ 생각했지만 지금은 우습게도 남의 집 창문 영상을 돌려 보거나 ‘구글 어스’로 해외 관광지를 돌려 보며 대리만족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인구가 수도권에 과밀된 한국에서 ‘조망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 ‘뷰’가 훌륭한 아파트 고층은 아무나 점유할 수 없다. 높은 곳에 살며

넓은 창 너머로 하늘과 한강, 산을 내다볼 수 있는 시선의 권력은 서울에서 서민이 감히 꿈꿀 수 없는 것이다. 아마도 나는 평생 저런 창문 밖 풍경을 가져볼 수 없을 것이다. 풍경을 갖는 것은 자본가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사치다. 실물로는 영접할 수 없는 풍경을, 나는 모니터로 바라보며 잠시 그것을 ‘공유’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진다.

같이 한다는 ‘연결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내 친구는 밤마다 영국에 있는 한국 유학생과 공부한다. 진짜 친구가 아니라 유학생 유튜브가 생중계를 시작하면 접속해 같이 공부하는 것이다. 인기 유튜버 중에는 해외 유학생이 많은데, 그들은 평소에는 외국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담은 일상 브이로그를 하다가 시험 기간에는 공부 유튜브를 한다. 영상에는 책상 위 책이나 손만 나온다. 찾아보니 지금은 프랑스의 한 유학생이 유튜브에서 공부 라이브 중이다. 책상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 같은데 한 번도 카메라를 보지 않고 공부에만 열중한다. 책상 옆 활짝 열어젖힌 창문 밖에는 예쁜 프랑스 건물과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다. 공부법을 알려주거나 혼잣말을 하는 라이브도 아니다. 정말 3시간 넘게 아무 말도 없이 열심히 필기 중이고 동시 접속자는 1000명이 넘는다. 친구와 손잡고 독서실에 가서 쉬는 시간에 컵라면이나 먹는 게 ‘같이 공부하는 것’인 줄 알았던 구세대로선 왜 남의 공부하는 영상을 켜놓고 공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친구에게 “남의 공부 영상은 왜 보는 거냐”고 물었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다. “안 봐. 나도 공부해야지. 그냥 틀어놓고 공부하는 소리만 ASMR(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 뇌를 자극해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는 영상이나 소리)로 듣거나, 분위기 조성하려고 켜는 거야. 혼자 적막하게 하면 집중도 안 되고 외롭잖아.”

“외로울 땐 진짜 친구인 나한테 전할 해…”라고 하려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에 살지도 않는 내가 그 집 창문 풍경을 모니터에 띄우고 잡다한 소음을 들으며 재택근무를 하듯이, 친구는 얼굴도 모르는 프랑스 유학생의 유튜브를 켜놓고 함께 공부하는 것이다. 우리 집 창문에는 풍경이 없고, 외로워서가 아니라 단절되고 싶지 않아서다. 랜선으로 세상과 연결돼 있고는 싶지만, 나를 아는 실존 인물과 전화 통화는 하고 싶지 않아, 뭐 그런 기분으로 말이다.

글 김승희·《빅이슈코리아》편집장, 칼럼니스트

봄은 마음속에 있다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SSF) 개막 공연



코로나19로 긴장감이 높았던 올봄, 두 계절쯤 지나면

예전과 같은 일상을 되찾으리라 기대했지만 2020년 가을은 기대와 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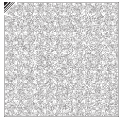
축제나 공연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거나 오프라인 행사 규모를 대폭 축소해 온라인과 병행하는 가운데,
5월에서 10월로 일정을 미룬 제15회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는 새로운 상황을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8일간 열렸다.

한 해가 저무는 풍경 속에서, 지난 14년을 찬찬히 되짚은 축제는 음악과 우리 마음이
쉽게 저물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 자리였다.



10월 10일 영산아트홀에서 진행된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개막 공연 <2014>

©허지영



해마다 5월이면 어김없이 열리던 봄 축제가 있다. 무려 14년 동안 계속된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SSF)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 유구한 역사의 축제는 미뤄졌지만 소멸되지 않았다. 끈질긴 생명력으로 가을에야 개막했다. 10월 10일 영산아트홀에서 열린 개막 공연 〈2014〉를 봤다. '신세계, 어제와 오늘'이란 주제로 펼쳐진 2014년 축제를 회고하는 공연이었다. 가을의 중심으로 향하는 절기에 어둠과 갈마드는 파란 하늘을 보며 공연장으로 들어섰다.

첫 곡은 하이든 플루트 4중주 제5번이었다. 조성현의 플루트와 이경선의 바이올린, 이수민의 비올라와 임희영의 첼로가 함께했다. 연주자가 직접 곡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는 모습은 예년과 마찬가지로였다. 조성현은 "악기 간의 대화가 있고 생기를 띠고 있어 오프닝으로 알맞은 작품"이라고 설명하고 연주에 들어갔다. 1악장에서는 고전주의 시대 특유의 단정함과 함께 즐거움과 명량함, 여유가 묻어났다. 2악장에서는 세 현악기의 어울림이 자리를 잡았다. 플루트가 나머지 세 악기를 견인하는 듯한 분위기로 연주가 진행됐다. 3악장에서는 이경선의 바이올린과 주고받는 조성현의 완급 조절이 돋보였다. 4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요소들이 즐거움으로 피어났다. 전체적으로 플루트의 대활약이 돋보인 곡이었다.

두 번째 곡이자 1부 마지막 곡은 에르뇌 도흐나니의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클라리넷, 호른과 피아노를 위한 6중주 Op.37이었다. 양인모의 바이올린, 이한나의 비올라, 김민지의 첼로, 채재일의 클라리넷, 미샤 에마노브스키의 호른, 박종화의 피아노가 함께 어우러졌다. 박종화는 "도흐나니는 20세기 초반에 브람스 스타일의 낭만주의를 선보인 작곡가"라고 소개했다. 브람스의 전통이 느껴지는 4악장 형태의 곡에서 1악장은 현악기와 관악기가 실내악답게 녹아드는 연주가 인상적이었다. 2악장에서는 여섯 악기가 가을 오후의 햇살을 받은 나무들처럼 툭툭하면서 다양한 색채감을 선사했다. 클라리넷으로 시작한 3악장은 더욱 브람스를 생각나게 했고, 역시 브람스가 사랑한 호른의 역할이 비중 있게 다가왔다. 재즈와 빈 왈츠의 요소가 보이는 4악장은 가장 신나고 흥미로운 부분이었다. 발랄한 영화음악에 우아함과 리드미컬함까지 곁들여진 이 작품을 들으며 실내악의 묘미에 빠질 수 있었다. 명지휘자 크리스토프 폰 도흐나니의 할아버지인 에르뇌 도흐나니의 작품들을 더 들어보고 싶어졌다. 공연장에서 직접 듣는 실내악은 이렇게 근사한 음악을 찾아 듣게 만드는 자극

으로 작용한다. 연주자들이 서로 씨줄과 날줄로 엮어가는 음악의 그림이 완성도가 높을 때 현장에서 느끼는 희열은 대단하다. 답답한 화면과 평면적 음향으로 전달되는 온라인 콘서트와는 비교 불가하다.

가을을 펼쳐 보이며 다가올 봄을 기약한 축제

2부에서는 브람스 피아노 5중주 Op.34가 연주됐다. SSF 음악감독인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을 위시해 바이올리니스트 박재홍, 비올리스트 최은식과 첼리스트 주연선, 그리고 피아니스트 아비람 라이케르트가 함께 연주했다.

1악장이 시작되자마자 무대에서 객석으로 단풍빛 가을이 왈칵 쏟아졌다. 강동석의 바이올린은 가늘었지만 관록의 긴장감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어서 양감이 도드라졌다. 두 바이올리니스트는 절도 있게 함께 움직였고, 비올라는 무심히 중역대를, 첼로는 깊숙한 곳에서 저음을 길어 올렸다. 2악장은 서정적이었다. 생각보다 양상한 고음현에 대비되는 첼로의 굵은 저역이 인상적이었다. 잎이 다 떨어진 나무를 연상케 하는 양상함은 가을과 잘 어울렸다.

3악장 스케르초에 들어서자 모두가 반복적인 패시지(passage)를 격렬하게 연주했다. 중간 부분에 평정을 되찾은 뒤 이어진 민첩한 합주는 마치 다섯 악기가 목소리를 모아 합창하는 듯했다. 4악장 피날레는 씹새래한 맛이였다. 파란 가을 하늘을 볼 때면 느껴지던 코끝의 차가움과 맵싸함이 음악을 통해 들어왔다.

이번 SSF는 축제 일정도 줄어들었고, 해외에서 오기로 했던 연주자들은 14일의 자가격리 기간까지 포함해 일정을 짤 수는 없어 부득이 우리나라 연주가들로만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연주력은 기존의 축제와 큰 차이 없이 다가왔다. 15회에 이르는 동안 우리 연주자들의 기량이 향상되고 인재층이 많이 두터워졌음을 알 수 있었다. 객석을 빠져나오며 문득 '가을의 한때가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향긋한 늦봄에 만났던 실내악 축제를 쌀쌀해지기 시작한 가을에야 만나고 돌아가는 길,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공연 애호가들에게 올해는 참 이상한 한 해였다. 공연을 기획하고 연주를 하고 청중을 살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흘릴 눈물도 더는 남아 있지 않았다. 그때 늦게나마 찾아와 준 축제가 고마웠다. 봄은 마음속에 있다. SSF로 인해 2020년의 가을은 새롭게 시작한 봄으로 기억될 것이다.

글 류태형_음악칼럼니스트 사진 제공 두나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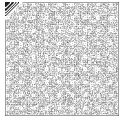
별에 곁을 둔 벼들빼들한 날들

김초희 감독의 <찬실이는 복도 많지>



처음 글을 배울 때처럼 정자로 꼭꼭 눌러 써보지만 벼들빼들한 날이 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 한다는 명제 앞에서도 주춤댄다. 태도도 바뀌보고 마음도 고쳐 먹어보지만
도무지 삶이 즐거워지지 않아, 또 내가 문제인지 머뭇거리게 된다.
이럴 때 어떤 방법으로도 즐겁지 않은 상황이 계속 이어질 때면 그나마 열심히 한다는 것이, 열심히 살아왔다는 것이
튼튼한 위안 혹은 변명이 될 때도 있다. 사실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악필이라도 내 눈에는 보인다.
흘려 쓴 것처럼 보이지만 대충 쓴 것은 아닌 내 삶, 내 꿈, 내 노력, 그리고 내 가치...





문득 멈춘 삶

함께 작업하는 감독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일이 뚝 끊겨버린 영화 프로듀서 찬실(강말금)은 제집도 없고, 남자친구도 없고, 돈도 없다. 먹고는 살아야 해서 친한 배우 소피(윤승아)의 가사도우미로 돈을 번다. 영화감독을 꿈꾸지만 역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소피의 불어 선생 영(배유람)의 따뜻함은 찬실을 설레게 한다. 새로 이사 간 집주인 할머니(윤여정)는 정이 많고, 본인이 장국영(김영민)이라 우기는 남자는 불쑥 찾아와 곁을 맴돈다.

찬실이는 마흔이 넘은 지금까지 자신의 꿈과 삶을 의심하지 않고 달려왔다. 자신의 노력, 자신이 꾸는 꿈, 그리고 영화를 사랑하고 영화를 위해 살아가는 자신의 삶이 오롯이 지금처럼 변함없이 이어질 거라 믿었다. 늘 함께 작업하던 감독이 죽으면서 프로듀서로서 자신의 삶도 온전히 거부당하리라곤 생각해 본 적 없다. 하지만 감독보다 딱 하루 더 살다 죽는 게 목표였던 찬실의 인생은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뒤집힌다. 잠시 멈춰 선 거라고 스스로 위안해 보지만, 다시 영화를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

찬실은 달아나는 대신, 영화 곁에서 생존하기로 한다. 영화 스태프들의 도움을 받아 이사를 하고, 배우 소피의 집안일을 도와 돈을 벌고, 영화감독 지망생에게 마음이 설레는데, 곁을 떠도는 귀신조차 자신이 장국영이라고 한다. 찬실은 영화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계속 영화 곁에 머무른다고 믿는데, 그게 또 조금은 위안이 된다.

그럼에도 별의 곁

설익은 밥, 걸만 익은 고기, 덜 녹은 냉동식품. 모두 적당한 온도와 시간을 들이지 않고 요리한 결과다. 이처럼 우리는 아주 쉽다고 생각하는 요리에 자주 실패한다. 인생도 비슷하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적당한 시간과 온도, 그리고 기다림이 필요하다.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은 심한 허기 앞에서는 아주 힘든 일이다. 예술가 지망생 혹은 예술가들이 인생에서 겪는 실수 혹은 실패는 성

급하게 뚜껑을 열어 설익어 버린 요리와 비슷하다. 수육처럼 속이 폭 익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걸만 바삭 타버린 고기처럼 성급하게 자신을 불태우기 쉽다. <찬실이는 복도 많지>의 찬실이는 열정이 넘치지만 제대로 성공하지 못한 수많은 예술인의 모습과 비슷하다. 찬실이는 영화 프로듀서지만, 실제로는 프로듀서가 아닌 순간이 훨씬 많다. 전업 영화인이고 싶지만, 영화를 하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자꾸 다른 일을 해야만 한다. 지쳐버린 찬실이는 문득 포기하고 싶어진다.

“나는 오늘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아. 대신, 애써서 해.”

주인집 할머니의 이 말은 찬실이의 지친 마음을 토닥인다. 뽀뽀뽀뽀 한글을 배우는 할머니의 글씨는 알아볼 수가 없지만, 할머니의 삶은 꼭꼭 쓴 정자처럼 바르다. 그래서 오늘도 또 하루를 성실히 살아내는 그 태도는 든든하게 의지해 보고 싶을 만큼 멋지다. 진짜 유령 장국영은 찬실이가 자꾸 놓아버리려는 영화에 대한 초심을 계속 곁에서 상기시킨다. 그래서 유령처럼 떠돌지 않고, 오늘 하루도 포기하지 않고 성실히 흘림체가 아닌 정자체로 살아보려는 찬실이의 용기와 다짐은 우리를 함께 설레게 만든다.

찬실이가 이사 온 집, 낡았지만 참 정돈이 잘돼 있는 할머니의 집 한 구석에 마련된 찬실이의 방에는 늘 따뜻하고 풍요로운 별이 눈이 부시게 쏟아져 들어온다. 김초희 감독은 그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찬실이 곁에 늘 별을 둔다. 소피도 영도 할머니도 모두 찬실이에게 뜨겁지 않지만 별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찬실이가 맞은 인생은 지금 겨울이지만, 마냥 춥지만은 않다.

<찬실이는 복도 많지>(2020)

감독 김초희

출연 강말금(이찬실 역), 윤여정(할머니 역), 김영민(장국영 역), 윤승아(소피 역), 배유람(김영 역)

글 최재훈_영화감독이 만들어낸 영상 언어를 지면 위에 또박또박 풀어내는 일이 가장 행복한 영화평론가. 현재 서울문화재단에서 근무하며 각종 매체에 영화평론과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제 7.5회 서울생활예술 오케스트라축제

scof.or.kr
2020.11.2. - 13.



#코로나
#비대면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특별시교육청





WEBZine⁺



주머니 속 문학잡지 [비유]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책장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웹진에서 만나보세요!

view.sfac.or.kr



연극 전문 웹진 [연극in]은 연극을 다양한 감각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현장과 무대, 공연하는 예술가를 관객과 매개합니다.

webzine.e-stc.or.kr



[춤:in]은 무용 전문 웹진으로 정보와 이슈를 제공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무용계 현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choomin.sfac.or.kr



Ping-pong, 명령과 오류 주고받기



〈Ping-pong: 텍스트와 이미지 주고받기〉 워크숍

형도가 협업을 제안한 것은 작년 가을의 일이다. 우리 주변에 만개한 이 데이터를 어찌할 수가 없고, 인공지능(AI)이라 불리는 것들이 소설을 쓰거나 음악을 만든 지도 오래됐으니, 웬만하면 그들을 우리 사이에 끼우고 무엇이든 만들어보자고 했다. “구글도 존 버거를 듣자마자 햄버거부터 떠올릴까?” 우리는 팔짱을 끼고서 곰곰이 그 질문을 곰씹어 보았다. 1년 뒤 형도와 나는 연희문학창작촌의 미디어랩에서 〈Ping-pong: 텍스트와 이미지 주고받기〉¹ 라는 이름의 워크숍을 진행하게 된다. 이는 우리가 웹진 [비유]에 연재하는 '하다'의 확장형 프로젝트 〈Ping〉이 어떻게 데이터와 관계하는지 소개할 겸 야심만만하게 기획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워크숍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 코로나19로 인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 단계'가 실시됐다. 열 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는데, 할 수 없지. 우리는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 계정을 만들고 마이크를 빌렸다. 온라인 워크숍의 화면 한구석에 자리 잡았던 강동호 씨와 정소영 씨는 참가 이후, 그들의 후기, 혹은 후기를 빙자한 오묘한 글을 한 편씩 보내줬다. 몇 대목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안녕 세상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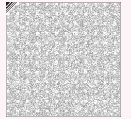
세상을 부르자 메아리처럼 P가 대답했다.

“안녕 세상아.”

우리는 서로를 세상이라고 불러주었다. 나는 마음이 크게 움직여 흐느꼈고, 주선자는 한숨을 쉬었고, P는 아마도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았다. 세상이 생겨나는 동시에 끝장나는 순간이었다. 눈물이 놀라서 달아나기도 전에 주선자가 씨늘하게 물이붙었다.

“P가 수영장에 가고 싶다니까 당장 5분 안에 데려다주고 와.”

강동호, 〈프로그램〉 중



워크숍의 최종 목표는 파이썬(Python)²을 통한 맵 스크래핑 실습이었다. 마우스 커서가 화면을 흐르며, 구글 지도 속에서 서울 곳곳의 수영장을 배회하는 것을 두 손 놓고 감상하는 일.

파이썬이 구글 맵에서 '수영장'을 검색하고, 서울에 위치한 수영장들을 돌아다니도록 명령했다. Run 버튼을 클릭한 것 외에 나는 어떤 동작도 하지 않았는데, 크롬 브라우저가 켜졌다. 구글맵이 실행됐다. "Chrome이 자동화된 테스트 소프트웨어에 의해 제어되고 있습니다"라는 문장이 떴다. 검색창에 수영장이 자동으로 입력됐고, 목록의 수영장들을 차례차례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했다. 주어를 누구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두 손 놓고, 가본 적 없는 키즈돌핀 강서발산점을 거쳐 영등포공원 물놀이장까지, 파이썬이 이동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기묘한 체험이었다. 그래, 이제 파이썬에게 맡기는 거야, 나처럼 자료 조사를 한답시고 웹에 접속한 뒤 땀길로 새다가 뭘 찾으려던 건지 까먹지 않을 파이썬에게.

정소영, <print("Hello, world!")>중

중의 화면 공유만으로 코드를 전달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일은 예상보다도 더 어려웠고, 우리의 의사소통은 데이터의 흐름만큼이나 여러 차례 미끄러졌다. 참여자들은 코드 입력 중 생겨난 에러 사이로 미끄러지고, 우리는 그들의 화면 속에 떠오른 오류 틈새로 미끄러졌다. 오로지 파이썬만이 흔들리지 않는 중심축을 갖고 굳건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춤춤하게 똑똑한 수학적 무늬들은 내가 무재무능한 시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보였다. 일곱 가지 연산자의 폭력과 문장부호들의 배신, 그리고 쉴 새 없이 터져 나오는 오류들의 비명을 가로질러 나는 문학으로 피신하는 길을 겨우 찾아냈다. 누군가 연습 문제를 풀지 못해 생겨난 것이 분명한 수학의 사각지대였다. 한눈에 보기에라도 척박하고 답이 없는 백지였다. P는 이 세계의 주인일까, 노예일까, 아니면 내 친구일까? 그런 생각이 불현듯 떠오르기도 했지만 사소한 고민일 뿐이었다. 나는 무작정 백지에 문학을 뿌리기 시작했다.

"나는 로봇 로봇, 로봇 로봇, 로봇 러버 로봇 러버 로봇 로버트."

"나는 로봇 로봇, 로봇 로봇, 로봇 러버 로봇 러버 로봇 로버트."

강동호, <프로그램> 중

결국 워크숍은 후반부에 발생한 오류 하나를 끝내 해결하지 못한 채 마무리되었다. 형도는 한동안 너털너털한 모습으로 앉아 있더니 불현듯 소리쳤다. "아, 잠깐만, 알았어. 뭐가 문제였는지." 화면 속에서 몇 개의 괄호가 사라지고 다시 붙었다. 이내 막 태어난 생물의 팔다리처럼, 마우스 커서가 움찔거렸다. 곧 그것은 유연한 움직임으로 수영장들을 오갔다. 자유로운 모습이었다. 현대의 바이러스나 거리 두기 2.5단계의 제약에도 결코 붙들리지 않는 몸짓. 나는 감격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우리가 그들을 키워준 게 아니라-그들이 우리를 키워준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글 함윤이_작가 사진 제공 웹진 [비유]

※강동호의 <프로그램>과 정소영의 <print("Hello, world!")> 전문은 웹진 [비유]의 <Png> 연재란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¹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습을 통해 데이터와 프로그램이 예술 창작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경험하는 워크숍으로 지난 9월 진행됐다.

²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

은희는 은희에게

제너럴콘서트 <피켓라인_은희에게 은희는>



<피켓라인_은희에게 은희는> 공연 장면(사진 제공: 제너럴콘서트)

극장 안에서 통용되는 규칙은 기본적으로 안전을 담보한다.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애쓴다.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되었다. 마스크를 쓴 관객의 체온을 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더욱 넓혀야 한다.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극장은 자신의 존재를 두 배의 안전으로 증명하고 극장 이용자에게 안전에 대한 믿음을 있는 힘껏 제공해야 한다. <피켓라인_은희에게 은희는>은 안전과 믿음이 교차하는 자리에 질문을 던진다. 무엇이 극장인가.

공연은 신도림역 1번 출구에서 시작되었다. 이름만 들어봤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던 곳이었다. 약속된 장소로 가니 공연진 두 분이 나를 맞아주었다. 그리고 어김없이 발열 검사를 먼저 했다. 나는 헤드폰과 하얀 봉투를 건네받고는 벤치 한쪽에 앉아 있었다. 헤드폰에서는 정체 모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노래가 흘러나왔다. 가을 하늘은 높고 별은 뜨거웠다. 노래가 끝나자 증언이 이어졌다. 나이를 먹었거나 중국에서 온 여자들의 목소리였다. 그들은 돌봄 노동을 하고 있었다. 목소리들의 힘은 언제나 크고 여자들의 증언은 더욱 더 그렇다. 눈앞으로 광장을 가로지르는 여자들이 보였다. 어쩐지 극장에 와 있는 기분이었다.

나는 '동아시아가사노동협회' 멤버 추천 비공개참관행사 프로그램에 비밀스럽게 초대돼 온 것이었다. 협회의 멤버들은 서로를 은희라고 부른다고 했다. 나는 헤드폰을 통해 은희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때 하얀색 쿨토시를 하고



챙이 달린 모자를 쓴 여자가 나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여자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더니 나에게 펼쳐 보였다. “저는 은희입니다.” 은희는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다.

태어나서 처음 와본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물론 내 앞에는 은희가 있었다. 나는 여전히 헤드폰을 낀 채였고, 우리는 마스크를 하고 서로의 목소리도 알지 못했다. 적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우리는 계속 걸었다. 광장을 나와 천변 도로를 지나 징검다리를 하나씩 건넜다. 은희는 자전거가 지나가면 잠시 멈췄고, 폐지가 잔뜩 실린 리어카를 끌던 남자에게는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나도 어느샌가 은희가 멈췄던 곳에서 멈췄고, 고개를 돌린 곳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마지막 건널목이었다. 적색 신호등 앞에서 우리는 잠시 쉬고 있었다. 고가차도가 만들어낸 큼지막한 그늘 아래였다.

은희는 더운지 챙모자를 벗어 위아래로 움직이며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우리 사이로 한 여자가 들어와 섰다. 여자는 유모차를 밀고 있었고 아이가 타고 있었다. 은희와 나는 동시에 아이를 쳐다보았다. 아이를 쳐다보는 우리를 여자도 쳐다보았다. 그동안 나는 은희의 등을 보며 걸어왔었다. 우리가 같은 곳을 쳐다보며 걸어왔기 때문에 나는 계속 보는 사람이었고, 은희는 계속 보이기만 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여자와 유모차의 등장으로 우리는 서로를 보게 되었다. 은희와 나 사이에 만들어진 적정 거리, 어떤 종류의 파장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우리는 누구를 관객이라고, 또는 관객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었다. 무엇이 지금 이 거리를 극장으로 만들어주는 걸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오래도록 떠나지 않았다.

은희가 데려온 곳은 ‘여관’이라는 빨간색 글씨가 적힌 문 앞이었다. 처음으로 은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길로 걸어갔다. 수정여관에 들어서자 시간이 묵은 냄새가 마스크 안으로 스며들어 왔다. 방바닥에는 시든 열갈이와 마늘과 구황 작물들이 열 맞춰 늘어서 있었다. 벽걸이 모니터에서는 음악과 함께 영상이 흘러나왔고, 아마도 은희의 모습인 것 같았다. 나는 앞서 받은 ‘취재기’를 펼쳐 눈으로 읽어 내려갔다. 실제로 영업 중이라는 작은 여관방이 주는 쓸쓸함과 창문 밖으로 보이는 신식 건물들의 모습이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돌보고 있는 은희의 이야기에 섞여들었다. “혼자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복수가 있지.” 헤드폰에서도 들었던 문장이 거울에 붙어 있었다. 침대에 걸터앉아 나처럼 숨을 골랐을 앞선 은희들을 잠시 떠올려보았다. 내 얼굴이 맞은편의 거울에 자꾸 비쳤다.

내가 보는 사람이었는지 보이는 사람이었는지 알지 못한 채 은희를 따라갔던 거리를 그대로 걸어 나왔다. 이번에는 혼자였고 어쨌면 은희는 내 뒤에 있었다. 길 곳곳에 무수한 은희들이 찍었을 발자국들 위로 내 발이 닿고 있었다. <피켓라인_은희에게 은희는>은 은희와 나 사이에 생겼던 어떤 거리감, 어떤 종류의 파장을 극장이라고 불러도 괜찮을 거라고 말해 주었다. 거리 두기의 시대에도 극장은 달힐 수가 없다고 나에게 힘을 주어 말하는 것 같았다. 오늘의 극장으로 나는 다음의 극장을 또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

글 정혜린_주로 연출을 한다. 이곳저곳에서 연극 만들기를 지속하고 있다. 천개번동 같은 공연을 만들고자 생각 많은 사람 강동호와 lunder&thightning이라는 팀을 만들었다. <방한림전> <The Rule and Roles> <더폴백> 등에 참여했다. fullmoonworking@gmail.com
※본 원고는 지면 관계상 편집되었습니다. 원문은 웹진 [연극i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당신은 누구입니까?

안경 무용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춤을 추며, 카페 사장으로 생활하고 있는 안경입니다.

이가영 모드로움직임연구소의 회원이자, 모드로살롱의 마담인 이가영입니다. 모드로살롱의 실세죠. (웃음)

이보라미 모드로움직임연구소에서 춤을 추고 있는 이보라미입니다. 모드로살롱에서 안경 씨와 이가영 씨와 함께 기획하고 있어요.

안경 모드로움직임연구소의 구성원은 총 다섯 명으로, 저희 외에도 최원석 씨와 주하영 씨가 함께하고 있어요. 보통 다섯 명이 함께 작업한다고 하면 의견을 하나로 취합하기가 어렵지 않냐고 하시는데, 오히려 한 가지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서 좋아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다른 분들이 생각해 주니 입체적인 작품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섯 명에서 대화를 충분히 나누며 작업하고 있어요.

Q 이곳은 어디인가요?

안경 모드로움직임연구소에서 해외 공연을 다닐 때, 방문한 곳 중에 편하면서 극장이기도 한 공간이 있었어요. 그 장소에서 영감을 받아서 극장과 전시 공간, 회의 공간 등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공간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생겨난 공간이 이곳이에요. 복합문화공간이라는 단어는 너무 거창하고 딱딱해 보이니, 살롱이라고 편하게 부르기로 했어요. (웃음)

Q 이곳에서 춤은 어떻게 발견되나요?

안경 공간 자체에서 발견하기보다, 이곳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에게서 춤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공간을 운영하다 보니, 얼굴은 알지만 한 번도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던 아티스트들도 만나게 돼요. 그렇게 그 사람과 몇 시간을 이야기하며 서로를 알아가다 보면,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에서 아이디어를 발견할 때가 많아요. 그 아이디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데, 그걸 춤이라고 표현하면 춤이죠.

이가영 춤의 형태는 다양하니까요. 모드로살롱 한켠에서 재생되고 있는 이재영 안무가의 작품 <디너>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어떤 분이 그 영상이 언제 상영되는지 물어보신 적도 있어요. 상영회를 진행할 생각은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걸 계기로 이재영 안무가에게 <디너> 작품을 상영해 보자고 제안했더니, 흔쾌히 승낙하더라고요. 그렇게 이곳은 누군가가 즉흥적으로 무언가를 벌이고 움직이는 공간이에요. 춤도 움직임이니, 이런 움직임 역시 춤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안경 모드로살롱을 열기 위해 두 달 동안 공사를 했어요. 목수 한 분만 섭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직접 했는데, 그 과정에서 지인들이 정말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렇게 공간 전체를 함께 만들어간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함께해 준 사람들에게 대한 고마움과 그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생각하다 보면, 움직임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결국, 공간과 사람이 만들어내는 교집합에서 움직임이 발생하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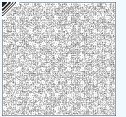
취재·정리 김연임_웹진 [춤:in] 편집장

아티스트 소개 모드로움직임연구소는 '사람에게 향한다'는 가치 아래 활동을 시작한, 현대무용을 기반으로 하는 움직임 창작 그룹이다. 인간 삶을 들여다보고 그 이야기를 움직임 언어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창작자 본인만이 이해하고 의미를 갖는 개인 차원의 예술이 아닌 동시대를 살아가는 여러 사람이 감상하고 감정을 공유하며 사유할 수 있는 예술 창작을 목표로 한다.

※ 본 원고는 지면 관계상 편집되었습니다. 원문은 웹진 [춤:i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드로살롱 ©Kenn.김병규



춤+여기

공간과 사람이 만들어내는 교집합에서 발견한 춤

모모로움직임연구소



웹진 [춤:in]

11

SFAC

문화예술공간

-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 금천예술공장
- 남산예술센터
- 대학로연습실
- 문래예술공장
- 삼일로창고극장
- 서교예술실험센터
- 서서울예술교육센터
-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 서울무용센터
- 서울연극센터
- 서울예술치유허브
- 시민청 | 삼각산시민청
- 신당창작아케이드
- 연희문화창작촌
- 잠실창작스튜디오
- 청년예술청
- 서울예술교육센터

- SFAC 행사·축제·예술교육·지원 및 협력
- 기타 문화행사

Mon

Tue

Wed

2

- (온라인)〈제7.5회 서울생활예술 오케스트라축제〉(~11. 13)
- 인디음악 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 〈서울라이브〉선정 공연 〈동묘구제음악축제〉(~11. 10) @동묘앞
- 공연 〈임동혁 피아노 리사이틀〉(~11. 6)
- 전시 〈한강은 누구에게나 비범하다〉(~11. 12)

3

- (온라인)〈서울거리예술축제 2020〉포럼(~11. 4)
- (온라인)인디음악 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 〈서울라이브〉선정 공연 〈플라밍고 라이브〉
- 콘서트 〈이희문 오방신과 발랑〉
- 뮤지컬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2021. 1. 17)

4

- 공연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 무용 〈한여름밤의 꿈〉
- 무용 〈해적〉(~11. 8)
- 연극 〈일어나라 팔복아〉(~11. 8)
- 전시 〈사사이람〉(~11. 14)

9

- 생활예술인 사이버 결과공유회(~11. 30)
- (온라인)연극 〈존경하는 엘레나 선생님〉

10

- 오페라 〈마술피리〉
- 연극 〈오직 관객만을 위한 두산아트센터 스트리밍서비스공연〉(~11. 28)
-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내한공연(~2021. 1. 17)

11

- 2020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선정작 공연 〈오페라 콘체르탄테 '토스카&피가로의 결혼'〉
- 공연 〈노지영 피아노 독주회〉
- 국립국악관현악단 〈정오의 음악회〉
- 오페라 〈토스카〉(~11. 15)
- 뮤지컬 〈배리어 프리〉(~11. 15)
- 뮤지컬 〈에어포트 베이비〉(~2021. 1. 31)

16

- 〈2020 모두의 시민청〉(~11. 27)

17

- 뮤지컬 〈몬테크리스토〉(~2021. 3. 7)
- 연극 〈아마데우스〉(~2021. 1. 17)

18

- 남산예술센터 2020 시즌 프로그램 〈휴먼 푸가〉(~11. 29)
- 2020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선정작 공연 〈서울원드오케스트라 제106회 정기연주회〉
- 공연 〈2020 사운드 온디·엠티 III 연주자 시리즈 11-콘트라 베이스 이정우〉
- 연극 〈더 드레스〉(~2021. 1. 3)
- 공연 라포엠&손혜수 〈러브 포엠〉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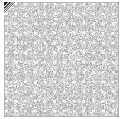
24

- 뮤지컬 〈작은 아씨들〉(~12. 20)
- 뮤지컬 〈세자전〉(~2021. 1. 31)

25

- 2020 서울예술교육아카데미 라운드테이블 〈태도의 전환_ '멈추니까 보이는 것들'〉
- 세종술로이스츠와 이안 보스트리지의 〈일루미나시옹〉
- 최정주의 아트앤뮤직 큐레이션 〈인상주의 화가들 시리즈 IV-폴 고갱〉

30



Thu	Fri	Sat	Sun
			1 ● 인디음악 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 〈서울라이브〉 선정 공연 〈Love City, 서울 & 도쿄 Vol.2〉 @채널1969 ● 공연 윤석철·까데호 콘서트 〈re-union〉 ● 포르테 디 콰트로 〈노테 스텔라타 2020〉 ● 공연 〈클래식판타지아-해피 클래식〉 ● 뮤지컬 〈배니싱〉 (~2021. 1. 31) ● 제10회 서울미래연극제 〈마지막 배우〉 (~11. 2)
5 ● 인디음악 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 〈서울라이브〉 선정 공연 〈Another Space〉 @생기스튜디오 ● 인디음악 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 〈서울라이브〉 선정 공연 〈홀로 우두커니〉 @문악HOM ● 공연 〈한국피아노두오협회 제17회 스페셜콘서트〉 ● 연극 〈스푸트니크〉 (~11. 5) ● 연극 〈배를 엮다〉 (~11. 8)	6 ● 2020 신당창작아케이드 기획전시 〈예술치료제 (Therapeutics agent)〉 (~11. 21) ● 2020 신세계 L&B 공예분야 예술지원 특화사업 〈세상의 모든 술과 함께하는, 어른들의 공예〉 (~11. 21) ● 2020 유망예술지원사업 99℃(시각) 선정작 한성우 〈사계-환절기〉 (~11. 30) ● 인디음악 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 〈서울라이브〉 선정 공연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문악HOM	7 ● 인디음악 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 〈서울라이브〉 선정 공연 〈빛과 일렉트로닉〉 @스페이스아이 ● (온라인)인디음악 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 〈서울라이브〉 선정 공연 〈주파수, 서울〉 ● 공연 〈오페라 패션〉 ● 연극 〈콘트라바쓰〉 (~11. 29) ● 연극 〈신의 아그네스〉 (~11. 29) ● 뮤지컬 〈목썸은 기린 지피〉 (~11. 8)	8 ● 2020 유망예술지원사업 NEWStage(연극) 선정작 김풍년 〈웅선〉 (~11. 8) ● 소프라노 임선혜 콘서트 〈바람에 실려온 노래들〉
12 ● 공연 〈서형민 피아노 리사이틀〉 ● 공연 〈데이브레이크 콘서트〉 (~11. 27)	13 ● (온라인)인디음악 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 〈서울라이브〉 선정 공연 〈서울&미국 클래식데일 블루스 교류〉 ● 인디음악 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 〈서울라이브〉 선정 공연 〈삼거리 '거리두기' 블루스〉 @벨로주 흥대 ● 뮤지컬 〈그날들〉 (~2021. 2. 7) ● 뮤지컬 〈소몰리에〉 (~2021. 1. 31)	14	15
19 ● (온라인)2020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선정작 공연 〈두들팝〉 ● 합선익과 심포니 송 마스터즈 시리즈 〈불멸의 베토벤 '합창교향곡'〉 ● 뮤지컬 〈호프〉 (~2021. 2. 7)	20 ● 뮤지컬 〈젠맨스 가이드〉 (~2021. 3. 1) ● 2020 서울시향 오소모 벤스케의 시벨리우스 교향곡 3번 ● 공연 〈제37회 대한민국국제음악제〉 ● 피아니스트 이승혜와 테너 안혁주 듀오 콘서트 II ● 해리포터 필름콘서트 IV 〈해리포터와 불의 잔 콘서트〉 (~11. 22) ● 무용 〈가무악칠체〉 (~11. 22)	21 ● 2020 예술로 부모플러스_어머니 예술학교 〈아트, 맘을 두드리다〉#1 ● 인디음악 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 〈서울라이브〉 선정 공연 〈K-funk Experience〉 @CJ Azit ● 인디음악 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 〈서울라이브〉 선정 공연 〈허클베리핀 × Stage V. 플랫폼 스테레오〉 @벨로주 흥대 ● 국립창극단 완창판소리 〈김수연의 수궁가-미산제〉 ● 디즈니 인 콘서트 〈A Dream Is A Wish〉 (~11. 22)	22 ● 명품 러시아 피아노 협주곡 시리즈 〈3개의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 쇼팽 탄생 210주년 공연 〈오마주 투 쇼팽〉
26	27 ● 2020 유망예술지원사업 MAP(음악, 전통, 다원) 선정작 유수연 〈#해시태그 악령〉 (~11. 30) ● 연극 〈햄릿〉 (~12. 27) ● 리그 오브 레전드 라이브: 디 오케스트라 (~11. 28)	28 ● 2020 예술로 부모플러스_어머니 예술학교 〈아트, 맘을 두드리다〉#2 ● 연극 〈킹스 스피치〉 (~2021. 2. 7) ● 공연 〈2020 서울시향 실내악 시리즈 V〉	29 ● 공연 〈이정수 귀국 비올라 독주회〉

※이번 호에 실린 공연·전시·행사 등의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0 유망예술지원사업 NEWStage(연극) 선정작

김봉년 <용선>

중요무형문화재 남해안별신굿 기능보유자 정영만 선생의 구름시나위에서 이야기의 실마리를 잡았다. '마려운 그대여, 여기 초능력이라는 요강이 있나니.' 아닌 밤중에 홍두깨요, 자다 봉창 두들기는 작당모의 곁판.

일시 ~11월 8일(일)
평일 오후 8시 | 주말 오후 5시(월 공연 없음)
장소 스튜디오 SK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010-2322-4016
facebook.com/sanghee.kim.104203



(온라인) <제7.5회 서울생활예술오케스트라축제>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제7회 서울생활예술오케스트라축제> 참여 오케스트라 단체와 생활예술인들의 생생한 이야기, 축제 준비 과정을 이미지와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다.

일시 11월 2일(월)~13일(금)
장소 scof.or.kr (전시 기간부터 웹 활성화)
문의 02-758-2024, 2016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서울

2018년 1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국내 팬들과 만나는 조성진의 전국 투어 리사이틀. 서울 공연에서는 이번 투어의 세 가지 프로그램 슈만 '유모레스크', 시마노프스키 '마스크', 리스트의 '피아노 소나타 b단조'로 구성된 프로그램2와 슈만 '숲의 정경', 시마노프스키 '마스크', 슈베르트 '방랑자 환상곡'으로 구성된 프로그램3을 선보인다.

일시 11월 4일(수) 오후 3시·7시 30분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관람료 R석 9만 원, S석 7만 원, A석 5만 원, B석 3만 원
문의 1577-5266



2020 신당창작아카데미 기획전시

<예술치료제; Therapeutics agent>

신당창작아카데미는 코로나19 시대를 읽는 새로운 기획전시 '예술치료제(Therapeutic agent)'를 선보인다. 예술로 불완전한 마음을 이완하고, 관계 회복을 위한 심리적방역을 공예 예술을 통해 제안한다.

일시 11월 6일(금)~21일(토)
오전 10시~오후 7시
장소 KOTE 별관
관람료 무료
문의 02-2232-8832



2020 유망예술지원사업 99°C(시각) 선정작

한성우 <꽃;벽>

2019~2020 유망예술지원사업 선정 작가 한성우의 개인전. 보이지 않는 기억과 감정이 이미지로 드러나는 과정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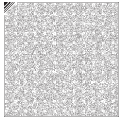
일시 11월 6일(금)~28일(토)
정오~오후 7시(월·화·수)
장소 연희동 플레이스막2
관람료 무료
문의 www.placemak.com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의 프렌치 오리지널 투어가 한국을 찾는다. 프랑스 초연 20주년 기념으로 제작된 새로운 버전은 의상과 안무, 조명 등을 업그레이드해 더욱 완성도를 높였다. 1998년 초연 당시의 오리지널 '프롤로'인 다니엘 라부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일시 11월 10일(화)~2021년 1월 17일(일)
화~금 오후 8시 | 토 오후 2시·7시 | 일 오후 2시
(월요일 공연 없음) | 12월 2, 9, 16일 오후 3시·8시
12월 20, 25, 27일 오후 2시·7시 공연
장소 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
관람료 VIP석 16만 원, OP석 15만 원, R석 13만 원, S석 10만 원,
A석 8만 원, B석 6만 원
문의 02-541-6236



2020 서울메세나지원사업 선정작

오페라 콘체르탄테 <토스카&피가로의 결혼>

(사)뉴서울오페라단이 선보이는 오페라 <토스카&피가로의 결혼>은 오페라는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대중을 위한 새로운 형식의 오페라다.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이 출연해 <토스카&피가로의 결혼>의 주요 아리아를 생생하게 들려주며, 두 명작의 주요 장면을 새롭게 연출해 관객에게 오페라의 정수를 선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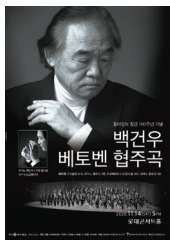
일시 11월 11일(수) 오후 8시
장소 롯데콘서트홀
관람료 R석 15만 원, S석 11만 원, A석 7만 원, B석 5만 원
문의 02-3431-3460(뉴서울오페라)



전시 <7의 순간>

7은 훈민정음 해례본에 기술된 첫 번째 발음기호이며 첫 상형 한글이다. 조선일보 창간 100주년 기념 특별전 <7의 순간>은 한글의 철학과 사상을 종합해 미술로 재해석한다. 김한기, 박수근, 백남준 등 작고한 작가들을 포함해 46인의 회화·설치·서예 등을 망라한 100여 편의 작품을 선보인다. 독립운동가 신채호의 시 '새벽의 별' 육필 초고 등 귀한 사료도 처음으로 공개된다.

일시 11월 12일(목)~2021년 2월 28일(일)
장소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한가람미술관
관람료 일반(만19세 이상) 1만 2천 원, 청소년(만 6세~18세) 8천 원, 유아(36개월 이상~만 5세) 5천 원
문의 02-580-1655



공연 <백건우 베토벤 협주곡>

피아니스트 백건우가 정치용이 지휘하는 KBS 교향악단과 함께 올해 탄생 250주년을 맞은 베토벤의 예술혼을 담아낸다. 공연 프로그램은 코리올란 서곡과 피아노 협주곡 2번,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서곡, 피아노 협주곡 4번으로 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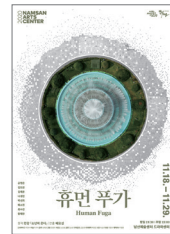
일시 11월 14일(토) 오후 5시
장소 롯데콘서트홀
관람료 R석 13만 원, S석 9만 원, A석 7만 원, B석 5만 원
문의 02-599-5743



뮤지컬 <몬테크리스토>

네 번의 시즌 동안 45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대작이다. 올해는 한국 초연 10주년을 맞아 더 화려한 무대와 웅장한 스케일로 돌아온다. 주인공 에드몬드 단테스가 악명 높은 섬 감옥에서 탈출하며 복수를 다짐하는 티저 영상이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

일시 11월 17일(화)~2021년 3월 7일(일)
 화·목 오후 7시 | 수·금 오후 8시
 주말 및 공휴일 오후 2시·7시(월 공연 없음)
장소 LG아트센터
문의 02-6391-6333



남산예술센터 2020 시즌 프로그램

<휴먼 푸가>

한강의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를 원작으로 한 연극 <휴먼 푸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남겨진 자들의 기억과 증언의 단편들을 쫓는다. 공연은 원작의 인물과 언어를 거의 고스란히 무대 위로 소환한다. 배우의 몸과 소리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연극 형식의 실험으로 옮기는 공연창작집단 '뛰다'와 소설의 만남이 극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일시 11월 18일(수)~29일(일)
 평일 오후 7시 30분 | 주말 오후 3시(월 공연 없음)
장소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02-758-2150 | www.nsac.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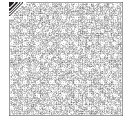


(온라인)2020 서울메세나지원사업 선정작

공연 <두들팝>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두들팝>에는 우기와 부기가 등장한다. 그들이 남긴 낙서는 악사들의 라이브 연주와 다양한 음향 효과로 표현된다. 절묘한 순간에 튀어나오는 오브제들과도 함께한다. 낙서와 음악이 어우러진 모습은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성인들에게 낙서의 추억을 선사한다.

일시 11월 19일(목)~22일(일)
장소 유튜브 '브러쉬씨어터' 채널(BRUSH Theatre LLC)
문의 02-6406-8324(브러쉬씨어터)



구로문화재단 월별 시리즈 <국악 하모니>

국악의 경쾌한 흥취를 담은 이색적인 아카펠라! 판소리, 경기민요, 서도민요, 아카펠라 전문가로 구성된 국내 유일의 국악아카펠라 그룹 '토리스'는 국악과 아카펠라의 융합으로 주목받은 그룹이다. K팝과 같이 세계로 나아가는 'K클래식' 국악 창작을 목표로 국악이 익숙한 장년층에겐 온기 가득한 아카펠라 음악을, 아카펠라가 익숙한 청소년에겐 국악의 신선함과 흥겨움을 전달한다. 모두가 한자리에서 신명나게 즐기는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일시 11월 20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오류아트홀
관람료 전석 1만 원(8세 이상)
문의 02-2614-7970 | www.guroartsvalley.or.kr



뮤지컬 <식구를 찾아서>

<식구를 찾아서>는 2011년 초연된 후 9년간 꾸준히 공연돼 왔다. 공연은 소외된 이들이 밥과 정을 나누며 진정한 식구가 돼가는 소박한 이야기를 웃음과 감동으로 전한다.

일시 11월 20일(금)~12월 27일(일)
금 오후 8시 | 주말 오후 5시(월~목 공연 없음)
장소 더쥬아트센터
관람료 전석 6만 6천 원(초등학생 이상)
문의 02-790-67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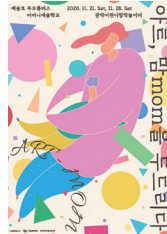


2020 서울메세나지원사업 선정작

공연 <서울윈드오케스트라 제106회 정기연주회>

관악계의 거장 알프레드 리드의 서거 15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공연이다. 그를 기리는 작품과 트럼펫 협연 등이 펼쳐진다. 공연은 알프레드 리드의 모습과 정신을 다시 한번 조명하며, 역경에 굴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일시 11월 18일(수) 오후 8시
장소 롯데콘서트홀
관람료 R석 8만 원, S석 6만 원, A석 4만 원
문의 02-2183-1290



2020 예술로 부모플러스_어머니 예술학교

<아트, 맘을 두드리다>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와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예술을 통해 부모의 성장을 돕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예술체험활동을 통해 어머니의 자아 탐색 및 자녀와의 소통을 증진시킨다.

일시 11월 21(토)·28일(토) 오전 10시~오후 1시
장소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참가비 무료
문의 02-871-7400



2020 유망예술지원사업 MAP 선정작

유수연 <#해시태그 악령>

관객들은 '0랜덤 비밀 채널 방'에 입장한 후, 실시간으로 댓글을 공유하며, 선택과 합의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참여한다. 진짜와 가짜가 뒤섞인 디지털 미디어 공간 속에서, 거대한 권력과 '악'이 생성되는 사회적 현상, 미디어 일상의 잠재적 재난과 공포를 표현하고자 한다.

일시 11월 27일(금)~30일(월)
오후 4시 | 오후 8시
장소 문래예술공장 갤러리M30
관람료 2만 원
문의 artclubnong@naver.com
www.instagram.com/artclub_n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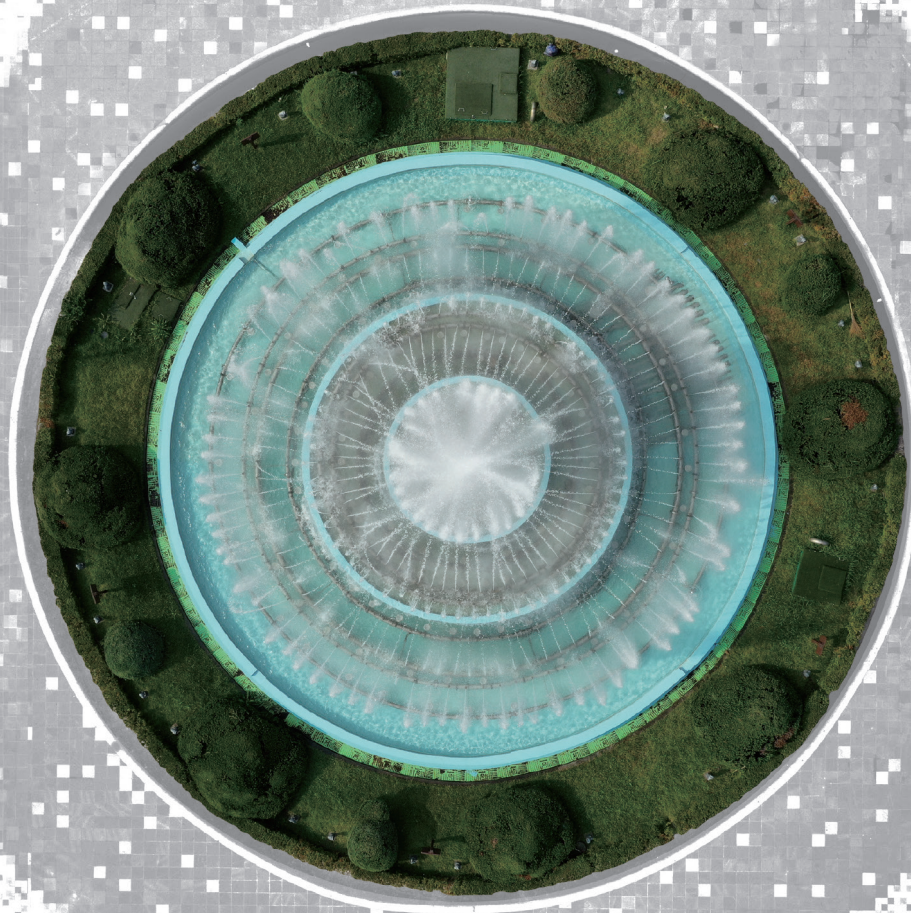
연극 <킹스 스피치>

연극열전8의 네 번째 작품 <킹스 스피치>가 국내 초연된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운이 감돌던 1939년, 말더듬증이라는 한계를 딛고 명연설로 영국 국민을 감동시킨 왕 조지 6세의 실화를 바탕으로 쓰인 작품이다. 희곡으로 쓰였으나 영화로 먼저 제작돼 아카데미 시상식을 비롯한 세계의 영화 시상식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일시 11월 28일(토)~2021년 2월 7일(일)
평일 화·금 오후 8시 | 주말 및 공휴일 오후 3시·6시 30분
(월 공연 없음)
장소 대학로아트원씨어터
관람료 R석 6만 원, S석 4만 원
문의 02-766-6007

2020 NAMSAN
ARTS
CENTER

남산아트센터
공연작업단



공병준
김도완
김재훈
나경민
박선희
배소현
최수진
황혜란

휴먼 푸가

Human Fuga

11.18. - 11.29.

원작 한강『소년이 온다』 | 연출 배요섭

드라마터그 이단비 미술 이주아 음악 김재훈 조명 강정희 사운드 남상봉 음향 김요찬 무대감독 김동영 무대제작 백정집 사진 이승희 영상 최용석 제작PD 차정훈

평일 19:30 | 주말 15:00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웹진 [문화+서울] www.sfac.or.kr/magazine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가장 좋았던 기사나 지적하고 싶은 점, 제안하고 싶은 것들, 어떤 의견이든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께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10월호 독자의견

[문화+서울]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감되는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을 뽑아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서울문화재단 본관에서 만났습니다.~)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다양하고 알찬 기사가 많아 모두 재미있게 봤지만 코로나 시대에도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전시, 변화된 미술시장, 플랫폼의 변화들이
흥미로웠습니다.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늘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구석구석의 소식과 내용까지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가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돼
더욱 활발한 공연·예술 소식을 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이팅!!

※ [문화+서울]은 웹진(www.sfac.or.kr/magazine)으로도 발행되며 종이 장지는 유료제표처에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엽서

송효인 님(서울시 마포구)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서울문화재단 본관에서 만났습니다.~)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다양하고 알찬 기사가 많아 모두 재미있게 봤지만 코로나 시대에도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전시, 변화된 미술시장, 플랫폼의 변화들이
흥미로웠습니다.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늘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구석구석의 소식과 내용까지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가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돼
더욱 활발한 공연·예술 소식을 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이팅!!

편집 후기

JJH와 함께한 지난 2년간 너무 고맙고 행복했습니다.

더 멋지게 성공해서 컴백하시오~ 안녕

이규승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장

저는 이제 독자가 되어 편집진을 응원하겠습니다.

늘 건승하고 건필하세요.

전주호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

道豪安寧

굳세고 뛰어나게, 아무탈없이 평안하길

김영민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

편후집기. 마지막 달까지 평탄치 않네요. 2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길요.

이아림 객원 기자

주요 배포처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국립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금천예술공장, 남산예술센터, 두산아트센터,
문래예술공장, 백성희장민호극장, 백암아트홀, 삼각산시민청, 삼일로창고극장, 상명아트센터, 서
교예술실험센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
문화재단(본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연극센터, 서울예술교
육센터, 서울예술치유허브, 시민청, 신당창작아케이드,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화창작촌, 예술가의
집, 잠실창작스튜디오, 정동극장, 중랑아트갤러리, 청년예술청, 한국공연예술센터, KT&G 상상
마당, LG아트센터 등.

[문화+서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지로 발간되므로 별도의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셔서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웨이브 2020

@시민청



전시

담벼락 미디어

정지숙	2020 COVID19 LOVE STORIES	10. 8. — 11. 1.
김혜경	與民樂(여민락, Enjoy with the people)	11. 5. — 12. 6.
장종완	여섯 개의 목소리	12. 10. — 21. 1. 3.
강이연	치유	21. 1. 7. — 1. 31.
조영각	서울제색도	21. 2. 4. — 2. 28.
김완수 × 성지연	유량화첩 in 서울	21. 3. 4. — 3. 31.

소리갤러리

김시연 × 박서은	롤러컨베이어 (Roller Conveyor)	10. 8. — 12. 6.
홍나경	잡음展 - 지금 여기, 다시 기억	12. 10. — 21. 1. 31.
차지량	떠나려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본다.	21. 2. 4. — 3. 31.

공연

애니메이션 크루	Dance Connection	9. 11. 18:00
오렌지아트 컴퍼니	'궁 나와라 뚝딱!' 서울 5대 궁궐이야기	10. 9. 18:00
극발전소 301	인간을 보라	11. 13. 18:00
악단광칠	인생 꽃 갈네	12. 11. 18:00

교육

최보결의 춤의 학교	[어린이] 춤추는 도서관 추자, 놀자, 크자!	9. 12. — 10. 31.
예술교육연구소 행복자	[성인] 슬기로운 낭독생활	9. 16. — 11. 11.
모두를위한극장 공정영화협동조합	[성인] 기억과 목소리의 필름살롱	9. 17. — 11. 12.

www.seoulcitizenshall.kr

I·SEOUL·U

서울문화재단

